

기본연구
2009-03

기본연구
2009-03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이관률 · 도묘연

2009.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091-8 03350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www.cdi.re.kr

기본연구 2009-03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이관률 · 도묘연

발 간 사

그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수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시민 사회에서 정부와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매개역할을 비영리 민간단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열악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단체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00)을 제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세계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장체제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사회적 경제가 요구된다. 이 경우 사회적 경제의 핵심주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1980년대부터 주요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보육, 요양, 환경재활용, 대체에너지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노동과 복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해 질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범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역일간지에 나타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협력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술적·정책적 논

의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정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이관률 박사와 영남대학교 도묘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문위원 및 충청남도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과 연대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민가단의 활동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즉 협력여부 혹은 협력유형(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타 기관과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 협력, 비협력)에 따라서 활동목적, 활동영역, 활동대상, 활동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와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는 협력유형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단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내 혹은 네트워크간 연결정도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셋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협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식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활동범위적 특성, 활동형태적 특성, 그리고 활동규모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설립목적과 활동목적, 활동특성은 차이가 있는 반면, 활동공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구분해 볼 때, 지역자치 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와 교육·학술분야는 타 기관과 협력을, 환경과 복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경제와 노동 및 농어민은 독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② 활동목적별로 구분할 경우, 활동목적이 정책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활동목적이 비정책적인 경우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③ 활동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학술은 비협력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공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해당 시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형태에 따라 활동대상, 활동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협력기관수 등의 활동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활동대상별로 구분해 볼 때, 자체조직회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동대상을 할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사회단체를 활동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활동방식별로 구분해 볼 때, 대중집회와 성명서·결의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전·캠페인과 캠페인+유지활동의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청원서, 기자회견·보도, 유지활동은 비협력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연대결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연대 미결성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과 타 기관

과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결성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및 비영리 민간 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협력기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개 이상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개 정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규모는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성과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건수와 활동기간은 활동건수, 활동기간, 참여이원은 따라 상이하지는 않지만, 활동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건수가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활동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기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유형과 관계없이 주로 당일 행사 위주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규모는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④ 활동비용은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천안 YMC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는 지리적 편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특

히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강조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주로 개별 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하위네트워크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 중 중심성이 높은 기관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전문화·차별화해야 할 것이며,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별로 핵심 비영리 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자적 활동 및 비영리 민간단체간 활동에서 탈피하여 타 기관과 협력이 보다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설 결사체인 연대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③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⑤ 공공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차 례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 1. 연구배경 | 1 |
| 2. 연구목적 | 3 |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 1. 연구범위 | 4 |
| 2. 연구방법 | 6 |
| 제3절 연구추진체계 | 8 |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9 |
| 제1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적 논의 | 9 |
| 1.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 | 9 |
| 2. 비영리 민간단체 성장 및 역할 | 14 |
| 제2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관련논의 | 19 |
|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 19 |
| 2.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유형 | 26 |
| 제3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관련논의 | 28 |
| 1. 네트워크의 개념과 필요성 | 28 |
| 2.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특성과 편익 | 32 |

| | |
|---------------------------|----|
|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7 |
|---------------------------|----|

제3장 분석틀의 설정

| | |
|--------------------|----|
| 제1절 분석모형의 정립 | 41 |
|--------------------|----|

- | | |
|-------------------|----|
| 1. 분석틀의 선정 | 41 |
| 2. 분석변수의 선정 | 41 |

| | |
|-----------------------|----|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6 |
|-----------------------|----|

- | | |
|-----------------------------|----|
| 1. 자료수집 | 46 |
| 2. 분석방법 | 48 |
| 3. 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및 분석지표 | 49 |

| | |
|--------------------|----|
| 제3절 조사대상의 개요 | 53 |
|--------------------|----|

- | | |
|---------------------------|----|
|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 53 |
| 2.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현황 | 58 |
| 3.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 | 61 |
| 4. 조사대상 자료의 일반특성 | 64 |

제4장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분석

| | |
|-----------------------------|----|
| 제1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분석 | 69 |
|-----------------------------|----|

- | | |
|-------------------|----|
| 1. 활동범위적 특성 | 69 |
| 2. 활동형태적 특성 | 73 |
| 3. 활동규모적 특성 | 79 |
| 4. 소결 | 82 |

| | |
|-------------------------------|----|
| 제2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 85 |
|-------------------------------|----|

- | | |
|-----------------------------------|----|
| 1.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 | 85 |
| 2.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 89 |
| 3.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 91 |
| 4.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의 종합 | 94 |

| | |
|-------------------------------|----|
| 제3절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의 활성화 방안 | 99 |
|-------------------------------|----|

| | |
|------------------------------------|-----|
| 1. 협력의 필요성과 연대활동 | 99 |
| 2. 협력활동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101 |
| 3. 협력의 편익과 애로사항 | 103 |
| 4.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106 |
| 제5장 결론 | 110 |
| 참고문헌 | 113 |
| 부록 1.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 | 123 |
| 부록 2. 설 문 지 | 157 |

표 차 례

| | |
|-------------------------------------|----|
| <표 1> 연구의 방법 | 7 |
| <표 2> 내용분석 자료수집 방법 | 46 |
| <표 3>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연도와 신문출처 | 47 |
| <표 4>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도별 등록현황 | 55 |
| <표 5> 충남지역 시군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 | 57 |
| <표 6>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활동 여부 | 58 |
| <표 7>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 활동건수 | 59 |
| <표 8>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영역 | 61 |
| <표 9>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 | 62 |
| <표 10> 조사대상 자료의 일반특성 | 65 |
| <표 11>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 | 67 |
| <표 12>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범위 | 68 |
| <표 13> 설립목적별 활동특성 | 69 |
| <표 14> 활동목적별 활동특성 | 70 |
| <표 15> 활동영역별 활동특성 | 72 |
| <표 16> 활동공간별 활동특성 | 73 |
| <표 17> 활동대상별 활동특성 | 74 |
| <표 18> 활동방식별 활동특성 | 76 |
| <표 19> 연대결성별 활동특성 | 77 |

| | |
|--------------------------------------|-----|
| <표 20> 협력기관 수 | 78 |
| <표 21> 활동건수 | 79 |
| <표 22> 활동기간 | 80 |
| <표 23> 참여인원 | 81 |
| <표 24> 활동비용 | 82 |
| <표 25>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의 종합 | 84 |
| <표 26>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중심성 | 88 |
| <표 27>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88 |
| <표 28> 타 기관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 90 |
| <표 29> 타 기관과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91 |
| <표 30>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성 | 93 |
| <표 31>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94 |
| <표 32>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중심성 | 96 |
| <표 33>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98 |
| <표 34> 협력의 필요성 및 협력정도 | 99 |
| <표 35> 상시적 연대활동 | 101 |
| <표 36> 타 기관과 협력활동의 평가 | 102 |
| <표 37> 협력활동의 활성화 방안 | 102 |
| <표 38> 협력의 편익 | 104 |
| <표 39> 애로사항의 요인분석 결과 | 105 |
| <표 40> 협력의 편익과 애로사항 | 106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 |
| [그림 2] 연구의 추진체계 | 8 |
| [그림 3] 연구범위 및 분석변수의 선정 | 45 |
| [그림 4] 네트워크 구조(예시) | 52 |
| [그림 5]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연도별 등록현황 | 54 |
| [그림 6]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 | 68 |
| [그림 7]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 | 86 |
| [그림 8]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 89 |
| [그림 9]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 구조 | 92 |
| [그림 10]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 | 95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시민사회를 추동하는 주요한 세력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¹⁾의 활동은 21세기 정치·사회발전의 중요한 동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화두이다. 정부 및 기업영역과 대별되는 제3섹터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과 영향력 증대는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L. Salamon 2004; 1996; 1994; J. Cohen and A. Arato, 1992; D. Bills and H. Glennerster, 1998; 김준기, 2006b; 주성수, 2005b; 김선휘 2003).²⁾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본격적인 성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민단체(NGO)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민주화 초기 과정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으로 대변되는 시민단체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중추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 시행은 시민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제도화된 이름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의 형성하면서 공공선(public goods)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과 더불어 제3섹터로

1) 한국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둘러싼 개념적 논의는 제2장 1절을 참고한다.

2) 3섹터 모델은 정부를 1섹터, 기업을 2섹터 그리고 시민사회를 3섹터로 하여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모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비정부·비영리 기관과 단체들이 3섹터로 통칭되며, 혹은 3영역(third realm)으로 부르기도 한다. 3섹터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성수(2005b)의 내용을 참고한다.

서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자, 그리고 정책과정에 시민의 이익을 투입하는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더불어 1990년대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을 확산시켰다.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문제의 최근접성과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중요 문제를 이슈화하고, 지역의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시민들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비해 조직적·전문적인 단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 수와 물적 자원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이후 활동을 하고, 보조금이 끊어지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과거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소위 관변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허철행·문유석·김상구, 2008). 물론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YMCA 등과 같은 소수의 명성이 있는 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정책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백화점식 운영, 소수 전문가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리고 조직의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물적 자원으로서 재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조직자체를 운영하기도 힘들며, 활동의 실적이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도묘연, 2007; 조민경·김렬, 2007, 정상호, 2008). 더욱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와 주민,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후원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앙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장인봉·고종욱, 2004),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재정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 취약성이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과 시민 대변자적 활동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면, 현시점에서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문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물적 자원으로서 재원 부족을 극복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있는 방안을 네트워크 구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정부, 의회, 기업, 다른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동시에 시민과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비해 정책과정상에서 다양한 이익표출활동을 전개하는 전통적인 이익집단의 활동은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수평적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 구축은 주어진 물적 환경 하에서 신뢰와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독립적인 조직과 비교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발하면서 높은 자율성과 이윤추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김용학, 2007).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과 연대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민가단의 활동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즉 협력여부 혹은 협력유형(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타 기관과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

와 타 기관과 동시 협력, 비협력)에 따라서 활동목적, 활동영역, 활동대상, 활동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 민간 단체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와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는 협력유형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단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내 혹은 네트워크간 연결정도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셋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협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식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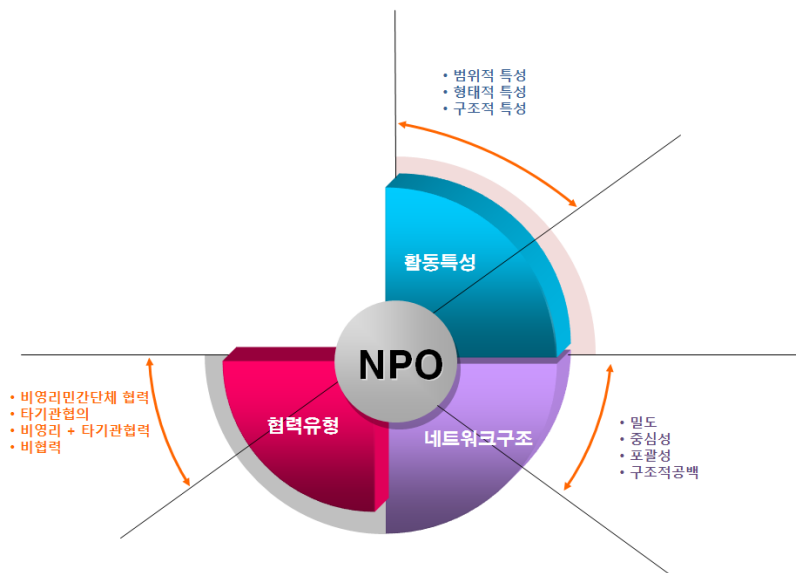
1. 연구범위

1) 내용적 범위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적 특성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규명하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유형(비협력,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타기관과의 협력, 비영리민간단체와 타기관 동시협력)별로 나타나는 활동특성을 활동범위(목적, 영역, 공간), 활동형태(대상, 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활동규모(횟수, 인원, 비용)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 밀도, 중심성, 포괄성, 구조적 공백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협력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셋째, 협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식구조와 협력의 편익 및 애로사항을 분석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한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은 충남지역 비영리 민

간단체간의 연대와 협력활동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태안기름유출사건의 경우,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와 전국 및 타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를 통한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림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 1월 1일에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를 최근의 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시기를 설정하였다. 둘째, 무엇보다 이 시기 충남지역은 태안 기름유출사건, 행정중심복합도

시 유치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태안 기름유출사건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태안 살리기’라는 생태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해 피해 주민의 생계보장과 기름유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 및 이슈표출과 시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최근 2년의 시기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과 네트워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

다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실시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2006년 이전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추이를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양적 연구방법의 병행하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은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구분되지만,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연구의 심층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충남지역 협력유형별로 나타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은 1차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수행된다. 특히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다른 매체의 정보에 비해 정제되어 있어,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활동내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보고서 및 내부자료 통해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기사나 공식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비정책적 활동의 내용을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이 모두 신문기사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정책이슈를 제기하는 정책적 활동에 비해 자원봉사적 활동과 같은 비정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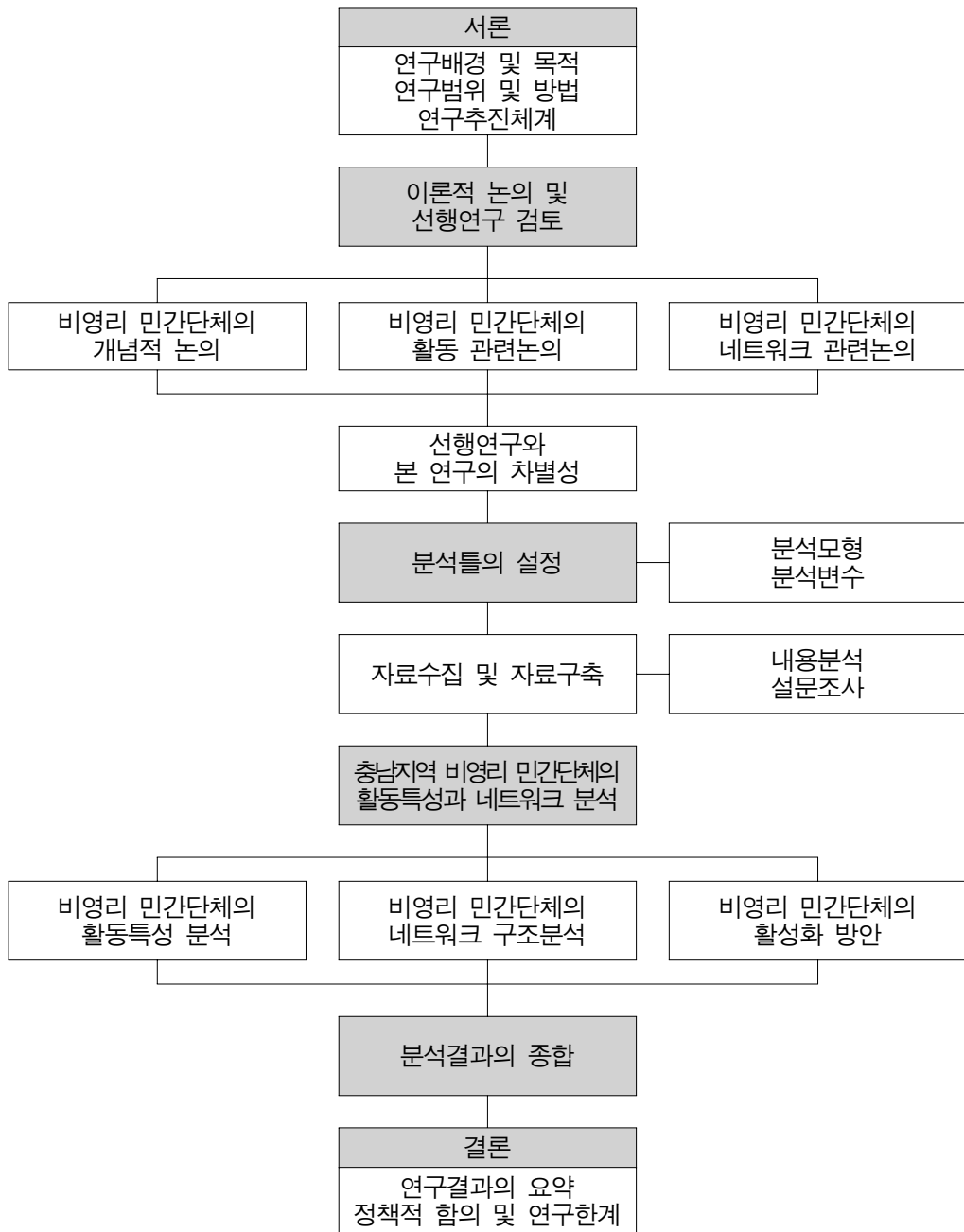
활동의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2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 네트워크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와 활동의 영향관계 분석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은 협력유형별로 분석되며 χ^2 -test와 분산분석을 통해서 수행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전문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사용하여 밀도, 중심성, 포괄성, 구조적 공백 등을 분석한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방법

| 구분 | 연구 내용 | 연구방법론 | 분석도구 |
|-------|---|---|---------|
| 질적 연구 | 비영리 민간단체 개념 및 활동,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연구 | 문헌연구 | - |
| |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 및 네트워크 구조 데이터 구축 | 신문기사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에 의한 DB 구축. | |
| 양적 연구 |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 및 네트워크 자료 수집,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설문조사 | |
| |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 분석 | χ^2 -test, 분산분석 | SAS 9.1 |
| |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 분석 | Network Analysis, | UCINET |

제3절 연구추진체계



[그림 2]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적 논의

1.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

1) 비영리 민간단체와 유사개념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NGO,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민간단체로 지칭되기도 한다. 연구자들 역시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로 번역되는 NGO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구영역에 따라서 NPO,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NGO 혹은 시민단체 개념은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으며 동시에 공통적으로 수용할 만한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황종복·노인만, 2007; 홍성만·전영평, 2005; 주성수, 2005b).

비영리 민간단체, NGO 및 시민단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CS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자원조직(VO: Voluntary Organization), 제3섹터 등의 용어를 들 수 있다. 영국과 영연방 국가에서는 NGO라는 용어보다는 VO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NPO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등록된 조직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과 연구자들은 NGO와 시민단체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³⁾ 일반적으로 NGO라는 용어의 사용은 UN(United nation)에서 정부기구(GO: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는 공식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NGO가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UNDP(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는 NGO를 “지방과 국가 또는 국제차원에서 조직된 자발적인 시민들의 비영리단체”라고 정의하면서, 지방과 국가 수준에서 활동하는 NGO를 그 개념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2; 경기개발연구원, 2002).

한편,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적 토착성을 지닌 개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기존의 민중단체와 관변단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여 강력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한 단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상필, 2006). 이러한 시민단체라는 용어의 사용은 한국과 같이 오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리우 환경개발회의,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등 각종 NGO 국제대회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시민단체는 NGO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NGO보다는 좁게 인식되지만, 현재 시민단체의 개념적 범주가 확장하면서 NGO개념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과 연구자들은 NGO와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의 시행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⁴⁾ 비영리 민간단체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비영리기구 혹은 비영리조직으로 번역되는 NPO의 개념에서 유래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영리기구는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의 관리절차를 가지고 어떤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단체이며, 연방정부나

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중 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NGO(77.8%)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시민단체(19.8%), NPO(8.6%), 지역NGO, 비영리 민간단체 순으로 나타났다(황종규·노인만, 2007).

4) 2000년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주정부의 조세체계상 공익목적 활동단체로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 중 민간비영리조직(Private NPO)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정부를 제외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는 NGO,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NGO, 시민단체로 지칭되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2000년) 시행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제도화된 이름으로 통칭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다 일반적·보편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NGO의 개념적 정의는 대부분 샐러먼(L. Salamon, 1999)의 NPO의 개념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NGO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적 정의는 NPO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를 주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⁵⁾ 그러나 NGO의 개념적 정의의 근간에는 NPO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공식적으로 NPO 개념 속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지는 협의적 의미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연구와 더불어 시민사회운동을 추동하는 핵심세력이라는 가치를 가진 개념이다.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억압해 왔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시민단체를 NGO라는 막연한 용어로 표현해서는 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전영평, 200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5) 외국의 경우 NGO는 국내적이라기보다는 국제적 용어로 이해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NPO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영국에서는 VO가 통용된다. 또한 프랑스는 사회경제를 뜻하는 *economie sociale*, 독일은 공동체 혹은 결사체를 뜻하는 *Verein*, 일본은 공익법인(公益法人)을 정부의 공식용어로 사용한다(World Bank, 1997).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자의 역할을 대한 담당하기도 하지만, 제3섹터로서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결집하는 비정부·비영리·비정파 결사체라는 보편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

한국 사회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NGO, 시민단체, NPO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3섹터로 불리는 NPO의 개념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NPO 정의 역시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정부섹터 및 시장섹터와의 경계선이 애매한 점 그리고 비영리라는 말 자체가 상당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⁶⁾

일반적으로 NPO에 대한 개념적 특성은 존스홉킨스대학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비영리섹터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NPO의 요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식적인(formal) 조직체이다. 즉 임시조직이 아니며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직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NPO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민간부문(private)이다. 즉 비정부적인 조직으로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 비영리성(non-profit)이다. 즉 사업 활동의 결과로 이윤이 발생했다하더라도 그것을 설립자와 출자자 등에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치성(self-governance)이다. 즉 단체의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치기구와 자체의 의사결정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활동과 운영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외부의 지시나 간섭 및 외부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자원성(voluntary)이다.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주로 자원봉사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운영자금 역시

6)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영리와 비영리와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비영리단체 중에는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상의 잉여를 올리는 곳도 적지 않다. 따라서 non profit이 아니라 not-for profit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선, 개인기부, 그리고 정부의 자원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L. Salamon, 1999).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NPO를 주로 볼런티어 등이 참가하여 타인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영리성, 즉 이윤의 배분이라는 원칙을 NPO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비영리단체가 이윤을 내는 것은 조직의 유지발전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이윤을 조직을 구성하는 출자자와 회원, 사이에서 배분하는 것을 제약 또는 금지하는 것이다.⁷⁾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적 논의 역시 샐러먼(L. Salamon, 1999)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공익과 사익이라는 관점과 정부와 비정부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공익과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정부적 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방수준에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 정의에 기초할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에는 동창회 같이 회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합적 단체 그리고 전문가·기능집단처럼 회원가입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집단은 제외된다.⁸⁾ 또한 정부지원이나 입김이 강한 정부주도형 비정부단체(Government Organized NGOs: GONGOs)도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 단체의 초기 설립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졌고,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

7) 프랑스의 사회경제(economie sociale)는 미국의 NPO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윤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사회경제는 미국의 NPO 정의와 구별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경제는 협동조합 같이 조합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단체 역시 NPO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경제는 협동조합, 커뮤니티 기업, 종업원지주회사의 회사조직 등도 NPO의 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사회경제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NPO는 사회경제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①이윤보다는 구성원 또는 사회적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 ② 자주적인 경영 관리(관리의 독립성), ③민주적 의사결정, ④소득배분에서의 노동, 인간, 우선 등의 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박기훈, 2008).

8) 한국 사회에서는 NPO의 개념을 공익적 활동을 위해 결성된 집단에 한정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제3섹터 모델을 적용하여 NPO를 시민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통칭하는 연구들은 NPO의 범주에 공공봉사조직 이외에도 노동조합, 재계 및 전문가단체와 같은 회원봉사조직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연방 국세청으로부터의 면세혜택은 공공봉사조직만 누리고 있다(Salamon,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이익집단으로 인식되는 집단 역시 제3섹터인 NPO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NGO와 NPO를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결사체로 정의하여 분류한 연구는 조희연(2000)과 박상필(2006)을 참조한다.

이후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의 추구하는 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동일한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박상필, 2000).

2. 비영리 민간단체 성장 및 역할

1) 경제학적 관점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과 존재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은 크게 시장실패(market failure)·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이론과 자원부문실패(voluntary sector failure)이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적·대리적 존재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식한다면, 후자는 적극적·주체적 존재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Weisbrod, 1998)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장을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수요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재 공급에 대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이를 보완하여 공급하게 되나 정부에 의한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의 초과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따른 보완재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은 사회 내의 이질성 심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사회내의 이질성이 심할수록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서비스에 상이한 서비스 요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성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Weisbrod, 1998). 따라서 개별 사회가 종교, 인종 등에 의해서 분화되어 있을수록 다양한 생활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 이를 충족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증가하게 된다(H. Anheier and L. Salmon, 1998; 김선미, 2001).

결과적으로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론에서 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화는 이윤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는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수요요구 초과 및 다양한 이질성에 기초한 수요존재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의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할의 축소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민간조직으로의 이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었다(E. James, 1987: 379-415).

둘째, 자원부문 실패론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을 정부와 자원섹터(3섹터)간의 파트너십의 형성에서 찾고 있다. 샬러먼(Salmon, 1995)에 의하면 자원섹터 혹은 시민사회는 자선적(philanthropic) 자원부족, 자선적 특정성, 자선적 국지성, 자선적 아마추어리즘 등에 의해서 자금자족 역량의 여러 실패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생력이 부족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게 정부가 직접 공급하려고 했던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를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행하게 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이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자원부문 실패론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실패로 발생하는 부족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비영리부문보다 높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재 공급이 훨씬 더 유리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책과정에 의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복수의 정책참여자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비영리 민간단체는 몇몇 단체 유관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제해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원섹터에 대한 재원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원섹터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은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각계 파트너십 기회를 확대시켜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부문실패이론은 자원섹터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확대발전은 자원섹터가 안고 있는 내재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자원섹터간의 파트너십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및 정부실패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가 소극적·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대안으로서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즉 시장 및 정부실패론적 접근은 사회의 공공재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정부가 주요한 대응주체가 되며, 비영리조직은 정부가 충족하지 못한 사회서비스의 틈새수요를 담당하는 이차적·보완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원부문실패이론은 시장실패의 1차적 대응은 자원부문이 담당하고 자원부문이 실패할 경우에 정부가 자원부문을 보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설명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은 주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이루고 있다. 즉 정부나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기능보다 사회문제나, 정부비판, 감시기능 및 정부와 거버넌스 파트너십 구축적인 측면을 더욱 중시하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환경, 지역자치, 시민사회부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경우 타부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바라는 연구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사회적 관점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을 설명하는 시각에는 사회운동이론과 거버넌스 관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축적되어왔는데, 이들은 시민단체와 국가권력의 갈등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자의 연구는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한 협력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사회운동이론은 시민단체를 국가권력이 지닌 억압과 독점력 그리고 경제권력이 지닌 불평등과 환경과피 등을 인한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Neil, 1989).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국가에 대항하여 부정부패방지, 인권옹호, 경제적 평등, 정치개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론은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시민단체를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시민사회운동의 주체로서의 존재가치와 더불어 공익에 헌신하는 민주주의의 전사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정상호, 2006b).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책 독점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할 목적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위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Hall, 1992).

사회운동이론의 맥락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신사회 운동의 한 측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권태환·임현진·송호기, 2001). 신사회 운동이란 1970년대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 크게 중대한 환경, 평화, 여성, 반핵, 그리고 녹색당 운동 등과 같이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등장한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신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 등장과 활동은 사회운동이 직면한 전략적, 실천적 그리고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은 정부와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장과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거버넌스 모델은 공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축소 그리고 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의 진행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등장하였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정부밖에 있는 행위자들과의 조직간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다(Peters and Pierre 1998). 따라서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그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사회의 다른 행위자, 즉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수평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네트워크적 관계를 형성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시민사회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사회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사회운동이론에서처럼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의 자원부문실패이론처럼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파트너십 형성에 주목한다. 즉 한국 사회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으로 설정되었다면, 민주화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공공재와 용역의 대안적 제공자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공적 이슈에 대한 정책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성장하게 되었다(J. Coston, 1998).

따라서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의 권한 확대를 견제하고 권력의 합법적 사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역의 공적인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선의 문제를 자원 주위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주로 정치사회적 관점, 즉 정부견제 및 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서구에 있어서 거버넌스론은 정부와 실패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세계화 등을 배경으로 논의되고 있지만(조성한, 2005; 주성수, 2001), 한국의 경우 거버넌스 우 거버그동안 발전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허철영·문유석·김상구, 2008). 정치사회적 우 의 연구들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관계유형을 규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홍성만, 2002; 김영종·이재호, 2002; 정정화, 2003; 최병대·김상구, 2004, 장인봉·고종욱, 2004).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재정지원의 문제점을 검토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도 한다(정상호, 2008; 민현정, 2004).

제2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관련논의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1) 공익과 책임성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익 추구라는 가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특수이익(special interest)과 같은 사적이익(private interest)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를 전제하는 공공이익(public good)이다. 즉 단체 구성원의 편익이 아닌 집합재를 추구하는 조직이며(Dawson, 1973),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common good)을 추구하는 조직(Schattschneider, 1960)이다.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태생적 조건인 만큼 그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 혹은 공공선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익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논쟁(정상호, 2006a)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익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우선 공익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추구하는 이익이다. 일정한 인구의 다수가 표방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이익이 된다면, ‘다수이익(majority interests)’이 공동이익(common good)’이 된다(V. Held, 1970).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시공을 초월하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으로 정의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뛰어넘는 이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공익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변자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이 사익처럼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한다.⁹⁾ 셋째, 공익은 자선적인(charitable) 성격을 가진다. 자선적이라는

9) 이러한 맥락에서 정태석은 공익의 개념을 단순히 ‘수적인 다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목표나 지향점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수적인 다수를 의미하는 공익을 소극적 공공선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포함하는 공익을 적극적 공공선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적극적 공공선은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정태석, 2005).

개념은 영국과 같이 관습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공익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여기에는 빈곤의 구제, 교육의 진흥, 종교의 진흥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타 목적이 포함된다(L. M. Salamon and H. K. Anheie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행하는 정치적 결정이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이 공익에 기초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학계나 시민들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은 그들 존립의 근거가 되는 공익적 활동을 정당하게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에서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시민단체 활동을 당위적·규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들 단체 활동에서 공익성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고, 공익에 기초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의 책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들 접근법은 주로 조직구조적 측면, 인적 및 재원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에 기초한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이 힘들 수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Unerman and O'Dwyer, 2006; Kilby, 2006; Iain Attack, 1999).

특히 후원자 이론(Walker, 1991)의 관점에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들의 공익적 활동을 후원하는 주체, 즉 개인, 회원, 후원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책임성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이 상위의 권위로 인정된 기관에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Edwards, 1996).¹⁰⁾ 따라서 비영리

10) 책무성은 이해관계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위로부터의 책무성(upward accountability)으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기부자나 재단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책임성이다. 둘째는 아래로 향한 책무성(downward accountability)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나 자신들의 이해가 대변되어지는 피대변집단에 대한 책임성이다. 셋째는 수평적 책무성(horizontal accountability)으로 동료에 대한 책무성이다. 넷째는 안으로의 책무성(inward accountability)으로 조직의 사명과 가치, 임원과 직원 등 스스로에 대한 안으로의 책무성이다.

민간단체는 후원자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한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한 개념적 특성인 이윤의 비배분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책임성은 더욱 중요하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의 성취물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배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후원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재정지원을 할 경우, 후원의 대가로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나 기업처럼 그들 활동에 대한 책무의식을 갖기가 힘들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요구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가에 비판을 제기한다면, 비영리 민간단체들 역시 그들의 공익적 활동에 공감하여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거품회원, 시민 없는 시민단체와 같은 위기론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영리 민간단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민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희망의 조건이라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Edwards, 2005: 214-215; 박원순, 2002).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05: 근거하여 시민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갖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들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익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활동과 비정책적 활동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의 기본 목표가 공익의 추구라면, 이러한 공익적 활동은 정책적인 것과 비정책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행위자 활동과 관련되며, 후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보완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활동과 관련이 있다.

첫째, 정책적 활동은 정책과정의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최병대·김상구,

2004).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은 기업, 전통적인 이익집단, 노동조합보다 더 막강한 의제설정자이자 정책형성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정책적 대안의 제시, 이익집단이나 이해집단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Berry, 1999).

한국 사회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집단의 운영과 활동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회원가입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주성수, 2004; 박상필, 2001; 김인춘, 1997; 김준기, 1998).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1980년대 중반 민주화와 개혁 이후 다원주의 이익표출체제로 전환한 한국의 정책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 역시 어떤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여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조직화된 집단(Berry, 1984)이다. 즉 알몬드와 포웰이 정의하는 결사적 이익집단(associational interest group)으로 정의할 수 있다(Almond and Powell, 1978). 비영리 민간단체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임시기구(ad-hoc entity)가 아니라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을 갖추고, 특정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구성원들간의 합의한 공식적인 전문직원, 규칙 및 절차를 가지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정책과정상에 자신들의 이익을 투입하는 정치적 행위자이다. 다만 투입하는 이익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귀결되는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인권, 사회정의, 환경 등과 같은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Berry, 1999).

정책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영향력 행사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과정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최병대·김상구, 2004). 이처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적 가치, 즉 이익표출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성명서,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고, 언론기관을 상대로 홍보자료를 제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시행에 관한 단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정부

공무원을 초청하는 간담회 혹은 정당의 인사와 접촉하기도 한다.

정책과정상에서 집단의 이익표출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축적되었다. 대표적으로 듀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집단의 활동을 행동 유형을 기준으로 권력수준의 활동과 대중수준의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Maurice Duverger, 1972). 권력 수준의 범주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행정부, 의회 그리고 정당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한다. 대중수준의 간접 활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 데모, 언론활동, 성명서 발표 그리고 시위 등을 포함한다.¹¹⁾

워커 역시 행동유형으로 기준으로 정책과정에서 활동하는 집단의 전략을 내부전략(inside strategies)과 외부전략(outside strateg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로비와 소송, 등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 관료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수립된 정책의 수정 혹은 새로운 정책수립을 유도하려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시위와 정치집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Walker 1991).¹²⁾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경우, 정책과정에서 벌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동은 대체로 엘리트 지향적 활동과 대중 지향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엘리트 지향적 활동은 선거입 후보자의 선거지원, 입법의 공식화 이행을 위해서 의회(중앙 혹은 지방)위원회의 참여,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주관하는 간담회나 회의 참여, 사법소송을 통한 이슈의 제기, 당해 기

11) 알몬드는 집단이 이익표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합헌적 접근통로(Constitutional Access Channels)와 강압적 통로(Coercive Channels)로 구분하고 있다. 합헌적 접근통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자와의 공적·사적 접촉을 통한 정보획득, 공청회 그리고 청문회 개최 등의 소극적 방법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명시적 지지와 정치자금의 제공, 공적 선거에의 입후보나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 창당 등과 같은 적극적 방법을 포함한다. 반면, 강압적인 통로는 대부분 비합법적인 정책참여의 형태로 나타나며,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비일상화된(unconventional) 정책참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합법적 방식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는 집단들이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표현하는 항의, 시위 그리고 폭력 등을 포함한다.

12) 슬로즈만과 티어니는 정책과정상에서 벌이는 집단의 대중수준의 활동에 관련하여, 여론의 형성 및 집단의 정책적 주장을 선전하는 대중설득과 동원의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과 미디어를 통한 사람들과 대화, 격려편지나 전보를 보내기, 항위나 시위, 대중에 대한 로비, 쟁점에 대한 집단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선전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문과 미디어를 이용하는 기법은 재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영리조직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편지쓰기의 방법은 대중들에게 친밀성을 주어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위나 항위의 기법은 노동자들이 주로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정치적 수단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법이다(Kay. L. Schlozman and John T. Tierney, 1986).

관의 건의서나 청원서 제출활동 등을 포함한다. 반면, 대중 지향적 활동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의뢰, 대중집회의 개최, 성명서나 결의문 발표, 인터넷을 통한 선전 및 홍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¹³⁾

둘째, 비정책적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 활동을 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장과 역할을 설명하는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즉 비시장적 재화 및 서비스 전달자 역할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사회적 수요는 있으나 영리단체나 정부에 의하여 생산이 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김준기·김정부, 2001).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공급으로 대변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경제(economie sociale)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경제는 사회적 기업,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를 의미하는데, 경제적 이슈에 취약한 시민사회의 개념과 달리 경제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비영리적 경제활동으로 정부나 기업이 달성하지 못하는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확고한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정상호, 2008).

유럽의 비영리조직인 사회경제(economies sociale) 기관들은 사회서비스 전달 및 제공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관은 1980년대 실업대책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고용교육훈련, 고용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부의 실업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정부가 제공했던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개인의 선호를 무시하는 것이었다면, 사회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을 접근을 중시하여 전문화된 사회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전달되었던 서비스, 즉 상담, 간호, 재활, 안전관리 등 휴먼서비스가 사회경제 단체들로 위임되는 추세는 1980년대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13) 특히 대중 지향적 활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인터넷의 이용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이익표출 방법과 달리 단체의 활동을 홍보·선전하는 자원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민주화 이후 분출하기 시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익적 가치를 표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이익집단 역시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익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 취약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인터넷 이용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정책적 활동에 필요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윤성이, 2001).

이러한 흐름은 일반적으로 사회민영화(social privatization)라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Khan, 1999). 사회경제 기관들은 시민사회영역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하여 문제해결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제고시킬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실패 및 시장 실패론의 맥락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지역자치,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등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정부 혹은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가 벌이는 환경보전사업, 환경교육은 정부가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공익의 역할을 대치하여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민의식 함양과 생활의식 개혁을 위한 캠페인 사업 역시 정부를 대신하여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독거노인 돕기 사업 역시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은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와 효율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하기 어려운 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Clayton, 2002).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공급의 역할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스스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형성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각종 사회경제와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도 1980년대 이후 국제원조와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들어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재정과 서비스 공급을 분담하거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부문이 서비스공급에서 많은 재량권을 갖는 공동협동형의 관계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재정보다는 서비스 공급의 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최병대·김상구, 2004).

2.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유형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앞선 논의한 활동목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적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정책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책적 활동은 활동대상과 방식을 기준으로 엘리트 지향적 활동과 대중 지향적 활동으로 유형화 된다. 전자는 정부 엘 및 정부 엘의 대표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전략을 동원하여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성명홍보, 집회, 성명서 발표를 통해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유형화는 영역, 성격 그리고 공간적 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영역을 기준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유형화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신문이 발행한 『한국민간단체총람』(2000, 2003, 2006)에 의한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은 전문가·직능집단과 경제집단,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리고 이전에 관변단체로 불렸던 집단을 민간단체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불리는 집단을 시민사회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민간단체총람』(2006)은 영역별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시민사회, 지역자치·빈민,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경제, 국제, On-line, 여성 12개 영역으로 유형화 한다.

그러나 『한국민간단체총람』(2006)에서 제시하는 활동영역의 구분은 분류척도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민간단체총람』의 구분은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가 하나의 독자적인 대분류로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대분류 항목인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11개 항목은 시민사회가 아니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정상호, 2006b). 이 점은 미국의 NPO 혹은 영국 VO의 영역 구분이 명백히 배타적 범주로 활동을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또한 전문가·직능집단과 경제집단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민간단체를 분류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에 따른 분류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공익적 가치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기준으로 활동을 유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하나의 과제를 갖고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환경, 복지, 문화, 경제, 노동 등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영역은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종속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활동성격을 기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복지, 개발, 후원, 네트워크, 연구 단체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서비스 지향적 활동단체, 볼он티어 지향적 활동단체(제도적 프로그램과 연결된 자원봉사활동, 자율적 서비스집단의 활동, 자조적 서비스 지향적 활동), 공공쟁점 지향 활동단체, 볼он티어 활동단체(정보 제공적 혹은 계몽 교육적 활동단체, 쟁점캠페인 지향적 활동단체, 권리주창형 활동단체)로 유형화할 수 있다(박선경·김영미, 2004).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공간적 범위 따라 전국적 활동조직과 지역적 활동조직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 주민운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및 지역 조직간 연계의 성격으로 세분화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독립형으로 전국적 조직과 연계나 다른 관련 조직 간에 연결망을 형성하기 않는 경우이다. 둘째는 연합형으로 전국적인 모 조직이나 연합체와 연결되어 있으나, 재정이나 활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조합형으로 전국적인 모 집단을 형성하고 형태이다(안득기, 2006a).

제3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관련논의

1. 네트워크의 개념과 필요성

1)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network)는 결절(node)과 결절의 연계고리이다. 즉 네트워크는 어떤 실체(재화, 자동차, 여행객, 서비스, 권력 등)가 교류되는 시설(연계고리 혹은 관계)에 의해 연결된 결절(행위자, 도시 등)들의 집합이다(Capineri and Kamann, 1988). 여기서 결절은 자주적인 존재인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상호연결된 시스템의 한 요소로써 전환시키는 특정 국면을 의미하는 연계(linkage)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다양한 결절이 상이한 역할과 이해를 가지고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형성된 관계적 구조로 파악하기도 한다(조명래, 1998).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네트워크는 효과적으로 조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는 조직활동의 목적달성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다양한 주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매개로 상호보완적 자원을 상호·교류하는 관계적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정책적 의미에서 본다면, 네트워크는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와 협동이다(김석준외, 2000). Rhodes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스스로 조직한다는 것, 그리고 자율적이고 스스로 통치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즉 통합된 네트워크는 정부의 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발전시키며 그들의 환경을 조성한다.

2) 네트워크의 필요성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적 행위를 통해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증진을 유도하게 된다(Dodgson, 1994). 즉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창출과 보완적 자산의

상호의존, 보완적 지식의 공급, 정보편익의 제공, 그리고 상호작용적 학습기회의 창출 등과 같은 편익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편익은 특정 조직이 독립적 행위로는 유발되지 않는 편익이다. 그러므로 개별 조직은 시장 혹은 정책의 의존도, 조직내 환경, 조직의 상호작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와 제휴 혹은 협력을 왜 하는가에 관한 이론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통일된 이론체계는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처럼 네트워크에 관한 합의된 이론체계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각각의 이론체계가 네트워크의 상이한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Hagedoorn et. al. 2000).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필요성은 크게 사회학적 측면과 경제학적 접근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학적 측면의 필요성

사회학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Sable(1989), Scott과 Storper(1992) 등이 있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회학 측면의 이론으로는 사회교환이론, 구조적 행위이론, 구조적 공백,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이규현, 2004).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교환이론이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이론은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사회구조를 사회연계의 패턴 혹은 사회관계의 형태로 보고 분석단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면서 어떠한 구조 속에서 단체간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Cook과 Emerson(1978), 그리고 Cook(1982)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두 개 이상의 연결된 교환 관계들의 집합들로 보고 있다.

둘째, 구조적 행위이론이다. A. Giddens(1984)은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 개념을 제시하면서 구조는 행위를 강압하고 강압받는 행위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재창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조와 행위는 상호관계성을 갖게 된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 사이의 관계망인 네트워크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선택하는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음 행위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결국 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

단체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구조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선택과 그 선택이 주는 제약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구조가 된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행위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맺는 네트워크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단체의 지각, 신념, 행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단체의 속성, 단체간의 관계,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의 체계로서 단체가 보이는 구조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단체의 속성은 환경(context)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나, 관계는 환경 의존적이어서 단체의 수가 변화하면 관계도 변화하고 관계의 유형이 달라지면 네트워크도 달라진다.

셋째, 구조적 공백이론이다. 네트워크의 구조분석에는 밀도, 중심성, 포괄성, 그리고 구조적 공백 분석이 있다. 밀도 분석은 한 네트워크에서 단체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며, 중심성 분석은 각 단체가 중심에 근접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구조적 공백¹⁴⁾란 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그 중심에 있는 단체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연결이 되지만, 다른 단체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B가 A와 같은 네트워크 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A가 B를 다른 단체로 대체할 수 없다면, B는 네트워크 내에서 구속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단체는 중복되지 않는 신선한 정보를 다른 단체보다 먼저 접하게 된다.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접하는 단체의 위치에 의한 사회적 자본이 달라지게 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론이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힘을 의미한다.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본이어서 개인적인 인적자본과는 다르다. 이러한 자원은 정보, 아이디어, 사업기회, 돈, 감정적 지원, 신뢰, 협력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의 밀도와 구조적 공백과 관련된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유대관계를 가진 단체에 소속하여 다른 단체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 속에서는 감정적 지원, 정보교류의 활성화, 배신행위의 약화 등의 이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 통제, 단결력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을 가진 단체들 사이에는 공통의 목적을 향

14) 구조적 공백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에는 구조적 자율성, 구조적 제약, 네트워크 공개성 등의 개념들이 있다. 구조적 자율성은 한 단체가 다른 단체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네트워크 제약은 한 단체가 다른 단체로부터 받는 제약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 단체가 네트워크 제약이 많아지면 구조적 공백의 효과가 적어진다. 네트워크 공개성은 한 그룹에 속한 단체가 다른 그룹의 단체와 연계가 존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여 가치관과 규범 공유를 통하여 단결력을 창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 경제학적 측면의 필요성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혁신경제론(innovation economics), 전략적 관리론(strategic management),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그리고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관률, 2005).

첫째, 혁신경제론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조직환경에 있어서 발생하는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는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nteraction)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증대, 기술의 집중성 증대, 짧아지는 제품생명주기, 그리고 기술변화의 가속화 등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Mowery and Rosenberg, 1989).

둘째, 전략적 관리론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상호보완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Hagedoorn, 1996). 일반적으로 조직은 집적의 증가, 암묵적 지식의 감소, 특수한 지식능력 등과 같은 조직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을 특정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내 한정된 현존자원을 증대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자원 교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조직적 학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셋째, 산업조직론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네트워크는 경쟁에 비해서 조직분가를 촉진할 뿐 아니라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후생을 더 증대시킨다(Kamien and Zang, 2000).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네트워크는 경쟁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뿐 아니라 중복 투자의 방지, 성과의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산업조직론의 관점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거래비용이론은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 이론이다. 즉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조직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네트워크의 확충도에 따라 거래비용은 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직의 제도적 구조

결정은 상이한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Coase, 1990). 그러므로 조직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이론은 네트워크의 특징의 한 국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완결된 체제로서 작동되는 바, 이상의 네 가지 이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함께 공존하게 된다. 즉 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의 제거,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다른 주체의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실패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어느 특정의 한 가지 이론적 측면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큰 바,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특성과 편익

1) 네트워크의 특성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는 상호성, 상호의존, 느슨한 결합, 그리고 권력 등을 지적할 수 있다(Grabher, 1993). 이는 네트워크의 본연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인 바, 네트워크의 특성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네트워크의 다양한 이론에 따라 그 특성도 차별성을 갖는다(이관률, 2005). 그러나 네트워크의 특성은 수직성과 수평성, 지리적 범위, 조직적 형태, 목적, 제한성, 안정적인 권력구조와 균형, 안정성과 신뢰성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Hämäläinen and Schienstock, 2000).

첫째, 네트워크는 수직적 특성과 수평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네트워크는 연계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 네트워크와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흔히 산업의 가치사슬에 의한 조직간 네트워크는 수직적 네트워크이다. 반면 기능적 영역에서 개인 혹은 조직의 연계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일반적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연구네트워크, 생산네트워크, 마케팅 네트

워크 등이 있다.

둘째,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즉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는 국지적(local), 지역적(regional), 국가적(national), 그리고 국제적(international) 등으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지적 네트워크가 발달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거버넌스가 발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네트워크의 조직적 형태는 다양하다. 즉 네트워크의 구조가 비공식적이고, 유연적이며, 신뢰에 바탕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구조가 공식적이고 견고한 경우도 있다(Lundvall and Borrás, 1997).

넷째, 네트워크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흔히 프로젝트팀과 일상적 협력은 단기적 목표 성취를 추구하지만, 전략적 제휴와 조인트벤처의 경우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네트워크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네트워크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불명확하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항상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언제나 변화하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가 개방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권력의 구조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주적인 주체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참여자는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일곱째, 네트워크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행위자간의 느슨한 연계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네트워크에 새로운 참여자가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 한편, 참여자가 용이하게 떠날 수도 있다.

2) 네트워크의 편익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적 행위를 통해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증진을 유도하게 된다(Dodgson, 1994). 즉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창출과 보완적 자산의 상호의존, 보완적 지식의 공급, 정보편익의 제공, 그리고 상호작용적 학습기회의 창출 등과 같은 편익을 유발하게 된다(심상완외, 2000). 이러한 네트워크의 편익은 특정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립적 행위로는 유발되지 않는 편익이다.

네트워크의 편익은 크게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NGA, 2002). 하드웨어적 편익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거래비용의 절감, 적절한 투자, 제품 생산과 고용 등과 같은 비용의 절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볼 때, 클러스터는 학습, 벤치마킹, 폭넓은 지식의 공유, 그리고 혁신, 모방, 그리고 개선훈 등을 전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편익은 클러스터의 특성에 부합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의 편익을 크게 집적(agglomera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집적,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편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reissl and Solimene, 2003).¹⁵⁾

(1) 집적의 편익

네트워크의 편익을 집적의 차원에서 보면, 지식의 창출(knowledge spillovers), 거래비용의 절감(transaction costs), 그리고 인프라의 공동이용(shared infrastructure)의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지식의 스핀오프를 촉진하게 한다. 우선 특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네트워크는 조직활동을 촉진케 하는 연구개발과 새로운 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체간의 정보의 이전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의해 더 원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상호교환하게 되는 반면, 형식화된 지식에 의해서 이전되는데 제약이 있다.

둘째, 네트워크는 조직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해 준다. 흔히 거래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거래비용은 거래주체간의 공간적 집적에 따른 대면접촉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즉 짧은 거리는 거래비용과 보험비용(insurance costs)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상호관계를 손쉽게 해 준다. 또한 지리적 근접은 네트워크내 조직간의 믿을 수 있는 신뢰 체계를 가능케 한다. 비록 최근 들어 전자정보체계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적 장벽이 제거되고, 이에 따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 체계에 의해 비공식적, 그리고 비형식적 지식이 상호교환되는 것은 아직까지 매우 한정

15) "네트워크의 편익"은 이관률(2005)의 pp. 25-29를 소개한 것이다.

적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공간적 근접과 비공식적 교류는 비교우위의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네트워크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네트워크는 교통체계, 대학, 에너지 및 용수공급체계, 그리고 통신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를 공급해 준다. 즉 조직의 숙련노동자 요청은 공공부문에서 교육기관 혹은 훈련기관의 설립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네트워크내 다수의 조직이 요구하는 특별한 공공인프라의 조성을 위해 투자하게 된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투자하고자 하는 행동과 모양보다 더 많은 양을 투자하게 한다. 그 결과 네트워크내 양호한 인프라 조건은 새로운 투자자와 잠재적인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활동의 편익

네트워크의 편익을 활동의 차원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외부경제(external economics), 그리고 전문화의 경제(specialization of economics)의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게 한다. 네트워크 내에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입요소의 가격과 거래비용은 다수의 수요를 규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인프라를 더 많은 수의 조직과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수익률이 더 양호해진다. 수요의 집적(agglomeration of demands)은 양질의 충분한 양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바, 네트워크는 중간재의 공급, 적합한 노동력과 지식에 있어서 우위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네트워크는 외부경제를 향유하게 한다. 외부경제는 네트워크화된 조직에 있어서 전형적 형태이다. 외부성은 산업클러스터의 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가능케 하는 교육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진다. 잠재적 고용자는 인력을 국지적인 인력망에 의해서 고용하게 되고, 지역내의 교육 및 훈련기관은 고용주의 수요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조직체의 특별한 수요는 조직의 지리적 근접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내 조직체의 증가는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치를 증가하게 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전문화의 경제를 향유하게 한다. 특정분야의 다수의 조직체와 고차원의 수요는 전문화를 유도한다. 즉 현존하는 수준 높은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전문화는 다른 조직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문화는 산출물의 수준과 상품생산의 이윤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개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네트워크내 기술과 장비는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3) 상호작용의 편익

네트워크의 편익을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적 상호작용(systemic interaction)과 암묵적 지식 및 신뢰(tacit knowledge and trust)의 2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다른 조직과의 상호작용은 활동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는 유사한 독립적 조직의 진화(evolution)를 확장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네트워크내 상호작용은 네트워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적 혹은 비경영적 상호작용은 활동과정의 핵심인 지식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oelandt and den Hertog, 1999). 이처럼 네트워크내 개별조직간의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가능케 한다.

둘째, 네트워크는 암묵적 지식과 신뢰를 증진시킨다.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정보시스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묵적 지식은 조직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Bergman and Feser, 1999). 즉 암묵적 지식은 특정 조직의 자산의 일부로써 존재하는 바, 특정조직 혹은 특정지역의 범위 안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정보의 순환고리와 지식의 확산을 활성화하는 반면, 네트워크 외부의 주체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암묵적 지식의 상호작용을 제고하는 환경을 창출하게 한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과 신뢰는 조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들 간의 대면접촉과 공간적 근접은 암묵적 지식과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ergman and Feser,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편익은 특정의 한 국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현실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완결된 체제로서 작동되는 바, 이상에서 살펴본 네트워크의 편익은 모두 함께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함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의 제거,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다른 주체의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전달하고 시민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정부와 시장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건제 및 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과학에서 조직의 운영과 협력을 위한 이상적인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공익적 활동과 정책적 활동을 활발한 수행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장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협력유형별로 구분하여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비영리 민간단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론적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명백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 및 비정책적 활동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협력유형별로 활동목적, 활동영역, 공간범위, 활동대상과 방식, 활동기간, 활동빈도, 활동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전제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비정책적 활동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장과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의 시민에서 발간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민간단체총람』은 활동영역, 설립년도, 재정·회원·상근규모, 활동지역,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거시적 지표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로 어떠한 단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실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2000년) 실시 이후, 중앙정부 혹은 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민헌정, 2004; 송두범, 2004)를 규명하는 연구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김상구·이원일, 2004; 김인, 2006; 김순은, 2005; 허철행·문유석·김상구, 200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단순히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 공모사업체 신청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버넌스 구축에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 양자간의 관계적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서도 활동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원주의 모델을 수용한 이들 연구는 활동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떠한 형태의 이익표출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가 엘리트 지향적 이익표출활동을 하는가 혹은 대중 지향적 이익표출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주화 이후 활동패턴의 변화와 그 원인 해명에 주력하고 있다(김영래 2000; 안병영, 1999; 황종성 1997; 김영래 1997; 전정환 1994; 이병화 1992; 도묘연, 2007).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 전반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상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익표출활동 패턴의 유형화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적 활동 이외에 자원봉사활동, 빈민구제, 환경캠프 등과 같은 비정책적 활동특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즉 밀도, 중심성, 포괄성, 구조적 공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최근 들어 사회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연구영역에서도 네트워크분석을 도입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창현외(2006)와 박치성(2006), 최유미외(2007)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이들 연구는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적·비공식 네트워크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와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연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해당 사례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친밀도를 네트워크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밀도, 중심성, 포괄성, 구조적 공백 등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네트워크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규명하는 노력은 정책네트워크 모델을 수용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축적되고 있다.¹⁶⁾ 이들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 비영리 민간

단체의 활동상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른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를 단편적인 서술에 의존하여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김주환, 2004; 황병상·강근복, 2004; 고길곤, 2007). 즉 기존의 연구들은 몇몇 비영리 민간단체 혹은 특정 정책 영역에 한정된 연구로서, 비정책적 활동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네트워크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훨씬 더 지속적이고 많은 활동을 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네트워크 구축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봉사 활동과 시민대변자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조직운영의 민주성 강화(안득기, 2006; 김준기 2006b; 김준기·신정현, 2005) 및 책무성 확보(이숙종·양세진, 2007; 안득기, 2005), 전문적 조직운영 기업의 도입, 정부지원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정상호, 2008). 또한 상업화 혹은 시장화 전략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고객중시형 재정기법의 도입을 제시하기도 한다(Goddeeris and Weisbrod, 2000).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재정적 취약성이고 전제하고, 네트워크의 구축이 신뢰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재원의 부족을 극복하여 자신들의 활동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경우, 설립은 되었으나 활동이 미미하여 이름뿐인 존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협력 혹은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중앙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경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라는 흐름 속에서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

16) 정책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김순양(2003), 그리고 실증적인 차원의 연구들은 고길곤(2007)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동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 문제는 중앙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원의 참여와 재정력이 취약해 독자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분석틀의 설정

제1절 분석모형의 정립

1. 분석틀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례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네트워크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협력유형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타 기관과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 협력,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비협력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활동특성은 범위적 특성, 형태적 특성, 그리고 규모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범위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 활동목적, 활동영역, 그리고 활동공간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형태적 특성은 활동대상, 활동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협력기관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규모적 특성은 활동건수, 활동기간, 참여인원, 그리고 활동비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분석은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가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갖고 있는 밀도, 중심성, 포괄성, 그리고 구조적 공백 등을 측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협력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식구조와 편익 및 애로사항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특성,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협력유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협력유형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공동의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력유형을 크게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과 협력,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른 기관과 공동협력, 그리고 협력을 하지 않는 비협력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본 연구는 협력유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범위적, 형태적, 그리고 규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활동범위, 활동형태, 활동규모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범위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적 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범위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목적, 활동영역, 그리고 활동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설립목적은 개별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당시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한국민간단체총람』과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경제, 국제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② 활동목적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궁극적 목적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정책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여기서 비정책적 활동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당시 추구했던 목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활동, 조직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 활동 등을 포함한다. 반면, 정책적 활동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활동영역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어떠한 지역사회의 이슈 혹은 정책상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가를 의미한다. 활동영역은 『한국민간단체의 총람(2006년)』을 기준으로 하데,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시민사회, 지역자치, 복지,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 및 농어민, 경제, 북한 및 통일, 여성 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④ 활동공간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적 범위가 어디인가를 의미하며,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로 활동을 수행하는 해당 시군, 대전·충남, 국내 타 지역, 해외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형태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형식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형태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대상, 활동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협력기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활동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대상으로 설정한 집단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대상을 유형화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의회, 사법부, 정당, 언론기관, 대중,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다른 사회단체 및 기관, 조직자체 및 회원, 그리고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② 활동방식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활동방식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활동방식을 유형화한 선행 연구와 비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단체 활동을 참고하여, 선거지원, 의회참여, 간담회 및 공청회, 사법소송제기, 청원서, 기자회견 및 보도의뢰, 대중집회, 성명서나 결의문, 선전 및 캠페인, 조직의 유지활동, 강연회·토론회·특강, 유지활동 및 캠페인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③ 연대결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책적 혹은 비정책적 활동을 수행할 때, 중범위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는 연대결성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연대 미결성으로 구분하였다. ④ 협력기관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책적 혹은 비정책적 활동을 수행할 때, 협력을 하는 단체 혹은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협력기관수는 0에서부터 실제 협력기관수 만큼 측정할 수 있다.

셋째, 규모적 특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 규모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모적 특성은 활동건수, 활동기간, 참여인원, 그리고 활동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활동건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일 행사의 활동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수행하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일 행사로 강연회를 개최할 경우, 강연회를 몇 번 개최한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활동건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② 활동기간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일 행사의 활동을 몇 일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일 행사로 환경 캠페인을 개최할 경우, 행사기간이 몇 일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¹⁷⁾ ③ 참여인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가 개최하는 활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수를 의미한다. ④ 활동비용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일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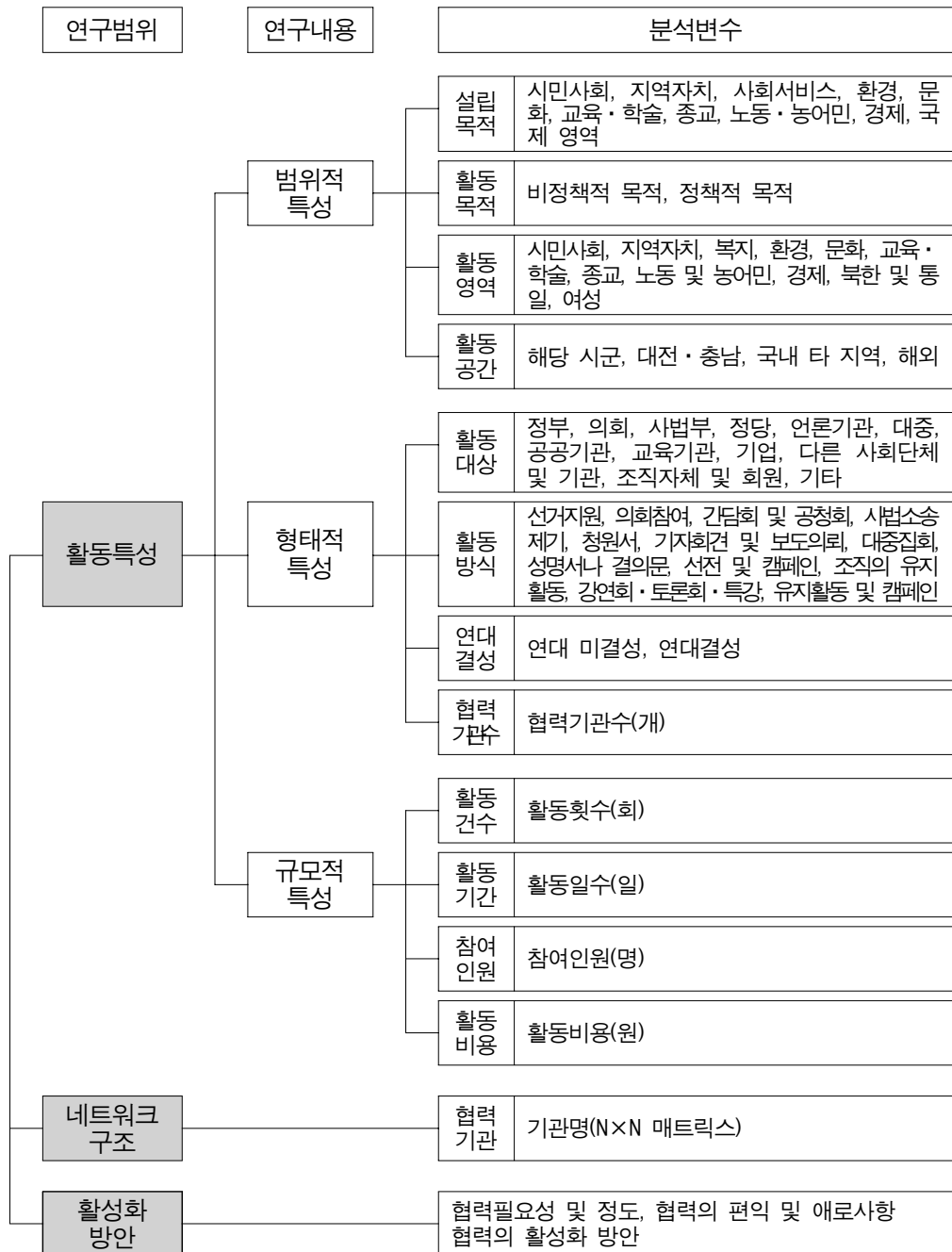
2)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유형별로 어떠한 기관 혹은 단체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가를, 즉 협력유형별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공통성과 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위해서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활동에 참여한 협력기관을 모두 기입하여 각 기관별 협력관계 흐름도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수행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 밀도, 중심성, 포괄성, 구조적 공백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하위집단분석과 집중도 등을 분석해 네트워크 전체의 특성을 분석한다.

3)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

앞에서 고찰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에 대해서 얻는 편익과 애로사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정도, 상시적 연대 활동, 협력활동의 평가, 협력의 편익과 애로사항,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17) 활동건수와 활동기간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림 3] 연구범위 및 분석변수의 선정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1) 내용분석

본 연구는 2009년 3월 현재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98개를 단체를 조사 단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태안 기름유출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최근 2년간, 즉 2007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먼저 1차적인 자료수집은 충남도청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등록대장의 분석을 통해 298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지역적 분포 등의 일반현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차적인 자료수집은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충남지역의 대표적 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3개 신문사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별 기관명을 검색어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신문기사의 수집과 자료구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월 10일에 완료되었다.

<표 2> 내용분석 자료수집 방법

| 구분 | 조사 내용 | 조사자료 |
|---------|----------------------------|--|
| 연구대상 | 충남도청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 298개 단체 등록대장 |
| 연구기간 | 2007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 |
| 연구방법 | 지역일간지 내용분석 및 구조화된 설문조사 |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뉴스레터 및 <u>충남지역</u> 설문조사 |
| 네트워크 구조 | “협력, 연대, 공동, 함께” …… | N×N 행렬 데이터 구축 DB는 활동목적별로 구축 |

조사된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5W 1H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횟수와 기간, 참가인원, 그리고 활동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신문기사내용은 각 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DB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총 616건 이었다. 이중에서 각 신문사별로 중복된 31건을 제외한 총 585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 585건의 활동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수행된 활동이 295건이고, 2008년도에 수행된 활동이 290건이다. 따라서 2개 년도에 각각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활동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총 585건의 신문기사의 출처를 지역일간지별로 살펴보면, 대전일보가 176건(30.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도일보가 173건(29.6%), 그리고 충청투데이가 129건(22.1%)이다. 반면 2개 이상의 지역일간지에 동시에 게재된 활동은 총 93건(18.9%)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3개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고 한 자료는 연도별, 자료출처별로 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개 지역일간지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58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자료DB는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하겠다.

<표 3>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연도와 신문출처

(단위: 건, %)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전체 | | 585 | 100.0 |
| 연도 | 2007 | 295 | 50.4 |
| | 2008 | 290 | 49.6 |
| 신문 출처 | 대전일보 | 176 | 30.09 |
| | 중도일보 | 173 | 29.57 |
| | 충청투데이 | 129 | 22.05 |
| | 대전/중도일보 | 14 | 2.39 |
| | 대전/충청투데이 | 39 | 6.67 |
| | 중도/충청투데이 | 43 | 7.35 |
| | 대전/중도/충청투데이 | 11 | 1.88 |

한편, 본 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신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인론 매체에 비해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문기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적 및 비정책적 활동 모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분석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활동내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보고서 및 내부자료 통해 보완할 것이다.

2) 설문조사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활동의 특성과 협력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98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09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행하였다. 총 298개 단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회수된 설문지는 50개로 회수율은 16.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배포한 설문지 중 45개가 수취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충청남도에 등재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약 15.%에 해당되는 기관에는 설문지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반송된 기관 중 중요 기관에 대해서는 전화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보완조사를 수행하였다.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것에 의하면, 다수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실체가 없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무실 이전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협력유형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분석, 네트워크 구

조분석,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분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와 방법을 거치기로 한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나타나는 활동특성의 분석을 위해서 χ^2 -test와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활동특성이 범위적, 형태적, 규모적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기관의 관계를 $N \times N$ 의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N \times N$ 의 매트릭스 구축은 먼저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신문검색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후 검색된 기사를 하나의 텍스트 문서로 변환하고, 이를 Kikwic이라는 내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언급빈도가 높은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주요 비영리 민간단체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N \times N$ 의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행렬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전용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밀도, 중심성, 포괄성, 그리고 구조적 공백 등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신문분석을 통해 나타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 특성을 종합하여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3. 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및 분석지표

1) 네트워크 분석의 의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구조측정방법으로 주로 정책공동체, 정책네트워크 및 사회이론 등에 있어서 행위자간 관계의 형태를 계량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사회과학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 네트워크 분석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전통적인 통계방법론과 달리 개별 단체가 독립적이라는 가정 대신에 개별 단체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로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체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연결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전체적인 수준에서 단체 간 연결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원, 정보의 흐름에 따른 단체 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물론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아냄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cott, 2000).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공식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에서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바, 네트워크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Ucinet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 특히 행위자간의 관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요약하며, 경우에 따라 다이어그램을 상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적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분석방법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선과 점으로 구성된 집합,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로서 사람, 물건, 사건 등의 행위자 또는 결절과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선, 그리고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구성된 간결한 표현방법이다(남궁근, 1998).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그래프이다. 이러한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표현되며 점은 네트워크의 행위자를 의미하고, 선은 그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현상을 한 행위자나 조직을 단위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출현적 속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 혹은 변수 중심의 접근법과 구별된다. 즉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행위자가 수많은 다른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체제는 구체적 실체들 간 관계 패턴의 규칙성을 가진 다양한 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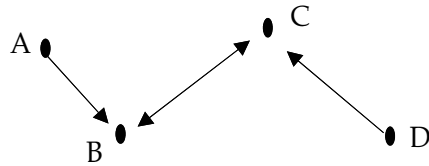
있다는 사회적 형태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한다(남궁근, 1998).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은 시스템 안에 있는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와 구성 요소들의 시스템적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를 통해 행위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행위자의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사회현상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Knoke & Kuklinski, 1993). 사회학 등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은 본질적으로 양적 분석을 지향하였으나, 이것이 정책과정 연구와 결합하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교차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네트워크의 분석지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중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준연결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준연결망은 사회과학에서 기존의 자료를 네트워크 자료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용학, 2007; 김옥일, 2008).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내기 위해 NetDraw을 활용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연결패턴을 도식화해주는 소시오그램분석과 구조적 특성인 밀도와 중심성,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연계망을 소시오그램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활동목적별 비영리 민간단체간 연결구조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림 4]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경우, 각 비영리 민간단체의 관계들을 소시오그램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소시오그램은 다시 관계행렬 형태로 전환하여 수학적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 행렬형태로 표현되어진 네트워크는 수학적 조작을 통해 거리의 계산, 중심성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위그룹 분석, 양자간 관계 등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네트워크 구조(예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는 전체 행위자의 수, 컴포넌트의 수, 가장 큰 컴포넌트의 크기, 고립자수의 수, 네트워크의 밀도와 포괄성, 중심성, 구조적 공백 등이 있다. 이중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 개념으로는 밀도와 포괄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포괄성은 연결된 노드의 수와 네트워크내 전체 노드의 수의 비율로 측정되며, 포괄성이 높다는 것은 행위자들간의 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네트워크의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행위자간의 모든 가능한 연결수와 실제 연결수간의 비율로 측정되며,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간의 관계의 응집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밀도는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네트워크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밀도는 한 네트워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들 사이에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밀도는 집단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한편 밀도는 실제로 나타난 관계의 수와 모든 가능한 관계의 수의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김옥일, 2008).

셋째, 중심성은 권력의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대부분의 경험적 분석에서 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고, 조직의 경우에도 중심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거나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김용학, 2007). 즉 중심성은 다른 참여자에 비해 누가 더 중요한 참여자인지를 찾는 분석지표이다. 이러한 중심성은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인접중심성으로 구분이 된다. ① 연결중심성은 특정 행위자와 연결된 행위자들 수의 총합으로 산출되며 지역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관계를 맺는 인접한 행위자의 수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관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행위자의 위치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기초개념이다. ②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두 행위자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 중 행위

자를 포함하는 선의 수로서 계산된다. 즉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여 다른 기관들을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네트워크에서 중심조직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개별 행위자가 중개자 혹은 매개자로서 활동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인접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전체적인 중심을 나타낸다. 지역적 중심성은 물론 전체적인 중심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반드시 전체적 중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김용학, 2007).

넷째,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즉 제한된 비용과 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중복을 피해서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가를 나타낸다(김용학, 2007). 구조적 공백이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의 연계에서 중복되지 않고 그 행위자를 통해서만 다른 행위자가 연결되는 위치를 말한다. 여기서 중복된 연결상태에 있는 행위자는 굳이 그 연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제공이 없으면서 비용만 지불하는 낭비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 공백을 확보한 행위자는 중복된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자들을 위한 중간매개로서 통제능력을 지니게 되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의 중복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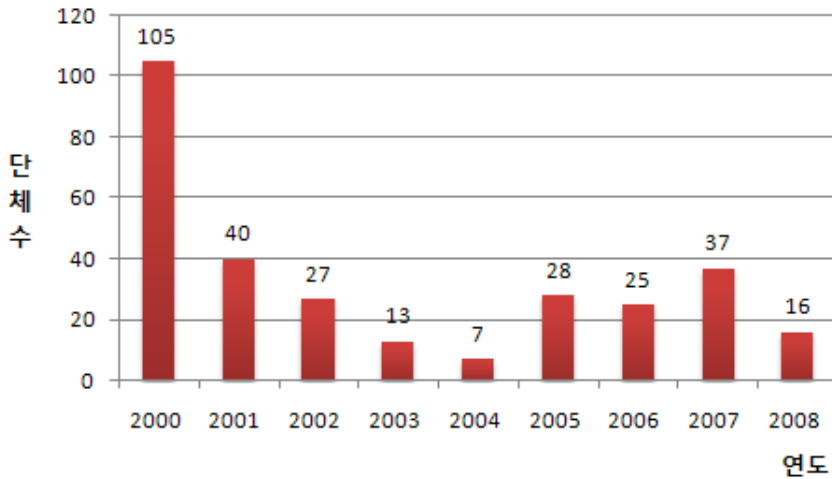
제3절 조사대상의 개요

1.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1) 연도별 등록현황

2009년 3월 현재 충남지역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298개이다.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당해에 105개(35.2%) 단체가 등록을 하였다. 그 이후 200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감소하였다. 2004년 7개의

단체가 새롭게 등록한 이후 200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37개의 단체가 새롭게 가입한 이후에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2009).

[그림 5]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연도별 등록현황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분야가 125개소(4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복지분야가 76개소(25.5%), 환경분야가 36개소(12.1%)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시민사회, 복지, 그리고 환경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와 교육, 노동·농어민, 그리고 경제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도별 등록현황

(단위: 개소, %)

| 구분 | 전체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총합 | 298 (100.0) | 105 (35.2) | 40 (13.4) | 27 (9.1) | 13 (4.4) | 7 (2.3) | 28 (9.4) | 25 (8.4) | 37 (12.4) | 16 (5.4) |
| 시민 사회 | 125 (100.0) | 71 (56.8) | 17 (13.6) | 4 (3.2) | 3 (2.4) | 2 (1.6) | 8 (6.4) | 8 (6.4) | 10 (8.0) | 2 (1.6) |
| 지역 자치 | 20 (100.0) | 12 (60.0) | 2 (10.0) | 2 (10.0) | 2 (10.0) | 0 (0.0) | 1 (5.0) | 0 (0.0) | 0 (0.0) | 1 (5.0) |
| 환경 | 36 (100.0) | 4 (11.1) | 11 (30.6) | 4 (11.1) | 1 (2.8) | 0 (0.0) | 5 (13.9) | 6 (16.7) | 3 (8.3) | 2 (5.6) |
| 문화 | 20 (100.0) | 4 (20.0) | 2 (10.0) | 1 (5.0) | 1 (5.0) | 3 (15.0) | 2 (10.0) | 1 (5.0) | 4 (20.0) | 2 (10.0) |
| 교육· 학술 | 9 (100.0) | 0 (0.0) | 3 (33.3) | 3 (33.3) | 0 (0.0) | 0 (0.0) | 1 (11.1) | 0 (0.0) | 0 (0.0) | 2 (22.2) |
| 종교 | 1 (100.0) | 1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노동· 농어민 | 7 (100.0) | 0 (0.0) | 0 (0.0) | 2 (28.6) | 0 (0.0) | 1 (14.3) | 1 (14.3) | 0 (0.0) | 2 (28.6) | 1 (14.3) |
| 경제 | 4 (100.0) | 2 (50.0) | 0 (0.0) | 1 (25.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25.0) |
| 복지 | 76 (100.0) | 11 (14.5) | 5 (6.6) | 10 (13.2) | 6 (7.9) | 1 (1.3) | 10 (13.2) | 10 (13.2) | 18 (23.7) | 5 (6.6) |

주: $\chi^2=144.8931$, $df=64$, $prob=0.0001$

한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시민단체와 지역자치, 환경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통적인 영역은 등록초기인 2000년과 2001년에 집중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복지분야는 2005년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문화와 노동·농어민과 같은 분야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이 과거의 시민사회, 지역자치, 환경, 복지분야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교육·학술, 노동·농어민 및 경제분야 등으로 다양화해 질 것이다.

2) 시군별 등록현황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시군별로 구분해 보면, 도시규모가 가장 큰 천안시가 전체 8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가장 작은 곳은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룡시가 2개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시군의 경우 공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개 내외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을 시군별로, 그리고 설립목적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주로 시민사회분야와 복지분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개 내외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민사회와 복지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에 1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문화와 교육·학술, 노동·농어민, 그리고 경제분야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천안지역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아산시에서 문화영역의 2개 단체와 교육·학술영역의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에서는 천안지역이 중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시민사회와 복지, 환경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천안시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거점 기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이 문화와 교육·학술, 그리고 노동·농어민, 경제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충남지역 시군별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

(단위: 개소, %)

| 구분 | 전체 | 시민 사회 | 지역 자치 | 환경 | 문화 | 교육 학술 | 종교 | 노동 농민 | 경제 | 복지 |
|-----|----------------|---------------|-------------|--------------|--------------|------------|------------|-------------|------------|--------------|
| 총합 | 298 (100.0) | 125 (41.9) | 20 (6.7) | 36 (12.1) | 20 (6.7) | 9 (3.0) | 1 (0.3) | 7 (2.3) | 4 (1.3) | 76 (25.5) |
| 천안시 | 88 (100.0) | 26 (29.5) | 4 (4.5) | 6 (6.8) | 13 (14.8) | 3 (3.4) | 1 (1.1) | 2 (2.3) | 2 (2.3) | 31 (35.2) |
| 공주시 | 22 (100.0) | 9 (40.9) | 0 (0.0) | 5 (22.7) | 0 (0.0) | 2 (9.1) | 0 (0.0) | 0 (0.0) | 2 (9.1) | 4 (18.2) |
| 보령시 | 13 (100.0) | 10 (76.9) | 1 (7.7)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15.4) |
| 아산시 | 26 (100.0) | 7 (26.9) | 4 (15.4) | 1 (3.8) | 2 (7.7) | 2 (7.7) | 0 (0.0) | 1 (3.8) | 0 (0.0) | 9 (34.6) |
| 서산시 | 12 (100.0) | 3 (25.0) | 0 (0.0) | 3 (25.0) | 2 (16.7) | 1 (8.3) | 0 (0.0) | 0 (0.0) | 0 (0.0) | 3 (25.0) |
| 논산시 | 16 (100.0) | 8 (50.0) | 1 (6.3) | 3 (18.8)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4 (25.0) |
| 계룡시 | 2 (100.0) | 2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금산군 | 12 (100.0) | 6 (50.0) | 1 (8.3) | 1 (8.3) | 1 (8.3) | 0 (0.0) | 0 (0.0) | 0 (0.0) | 0 (0.0) | 3 (25.0) |
| 연기군 | 13 (100.0) | 5 (38.5) | 0 (0.0) | 0 (0.0) | 1 (7.7) | 0 (0.0) | 0 (0.0) | 2 (15.4) | 0 (0.0) | 5 (38.5) |
| 부여군 | 7 (100.0) | 4 (57.1) | 0 (0.0) | 0 (0.0) | 1 (14.3) | 0 (0.0) | 0 (0.0) | 0 (0.0) | 0 (0.0) | 2 (28.6) |
| 서천군 | 7 (100.0) | 3 (42.9) | 0 (0.0) | 3 (42.9)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14.3) |
| 청양군 | 5 (100.0) | 3 (60.0) | 0 (0.0) | 1 (2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20.0) |
| 홍성군 | 10 (100.0) | 6 (60.0) | 1 (10.0) | 1 (1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20.0) |
| 예산군 | 10 (100.0) | 5 (50.0) | 2 (20.0) | 1 (1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20.0) |
| 태안군 | 10 (100.0) | 5 (50.0) | 3 (30.0) | 2 (2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당진군 | 18 (100.0) | 8 (44.4) | 1 (5.6) | 4 (22.2) | 0 (0.0) | 0 (0.0) | 0 (0.0) | 1 (5.6) | 0 (0.0) | 4 (22.2) |
| 대전시 | 27 (100.0) | 15 (55.6) | 2 (7.4) | 5 (18.5) | 0 (0.0) | 1 (3.7) | 0 (0.0) | 1 (3.7) | 0 (0.0) | 3 (11.1) |

주: $\chi^2=125.2063$, $df=128$, $prob=0.5534$

2.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현황

1) 공식활동 여부

본 연구에서는 2009년 3월 현재 충청남도에 등록된 298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기관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2년간의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신문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적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준을 파악하였다.

최근 2년간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98개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137개 단체가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46.0%는 공식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54%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공식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식활동 여부

(단위: 개소, %)

| 구분 | 전체 | 공식활동 무 | 공식활동 유 |
|--------|----------------|---------------|---------------|
| 총합 | 298 (100.0) | 161 (54.0) | 137 (46.0) |
| 시민사회 | 125 (100.0) | 62 (49.6) | 63 (50.4) |
| 지역자치 | 20 (100.0) | 14 (70.0) | 6 (30.0) |
| 환경 | 36 (100.0) | 20 (55.6) | 16 (44.4) |
| 문화 | 20 (100.0) | 14 (70.0) | 6 (30.0) |
| 교육·학술 | 9 (100.0) | 4 (44.4) | 5 (55.6) |
| 종교 | 1 (100.0) | 1 (100.0) | 0 (0.0) |
| 노동·농어민 | 7 (100.0) | 2 (28.6) | 5 (71.4) |
| 경제 | 4 (100.0) | 2 (50.0) | 2 (50.0) |
| 복지 | 76 (100.0) | 42 (55.3) | 34 (44.7) |

주: $\chi^2=8.2118$, $df=8$, $prob=0.4131$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공식활동을 살펴보면, 지역자치(70.0%)와 문화(70.0%), 그리고 종교는 공식적 활동을 한 단체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공식활동의 한 단체와 하지 않은 단체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공식활동의 수행여부가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의 약 50% 정도만이 공식적 활동, 그리고 나머지 50%는 공식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활동건수

최근 2년간 공식적 활동을 수행한 137개의 단체는 총 585건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식적 활동을 수행한 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가 평균 4.27회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298개를 기준을 할 경우, 평균 1.96회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 활동건수

(단위: 회)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총합 | 298 | 1.96 | 4.22 |
| 시민사회 | 125 | 2.02 | 3.55 |
| 지역자치 | 20 | 1.65 | 3.73 |
| 환경 | 36 | 3.08 | 8.31 |
| 문화 | 20 | 1.05 | 2.35 |
| 교육·학술 | 9 | 0.78 | 0.97 |
| 종교 | 1 | 0.00 | - |
| 노동·농어민 | 7 | 2.43 | 2.70 |
| 경제 | 4 | 4.50 | 8.35 |
| 복지 | 76 | 1.64 | 2.73 |

주: F-값=0.81, Prob=0.5960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활동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평균 2회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경제분야의 경우는 공식적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가 다른 설립목적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이는 소수의 단체에 국한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목적별 활동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설립목적과 활동영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설립목적보다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총람의 분류기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한 영역인 복지, 여성 등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활동영역을 다시 11개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영역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설립목적별로 활동영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주요 활동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설립목적이 시민사회인 경우는 활동영역 역시 시민사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설립목적인 경제인 경우는 주요 활동영역이 교육학술(35.7%)과 시민사회(18.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립목적인 복지인 경우는 활동영역이 시민사회(28.1%)와 복지(2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영역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설립목적이 경제인 비영리 민간단체는 교육학술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영역

(단위: 개소, %)

| 구분 | 전체 | 시민 사회 | 지역 자치 | 복지 | 환경 | 문화 | 교육 학술 | 노동 및 농 어 민 | 경제 | 북한 및 통일 | 여성 |
|-------------------|----------------|---------------|--------------|--------------|--------------|--------------|--------------|------------------------|-------------|---------------|--------------|
| 총합 | 585 (100.0) | 213 (36.4) | 67 (11.5) | 61 (10.4) | 83 (14.2) | 48 (8.2) | 60 (10.3) | 14 (2.4) | 12 (2.1) | 5 (0.9) | 22 (3.8) |
| 시민 사회 | 253 (100.0) | 142 (56.1) | 21 (8.3) | 28 (11.1) | 11 (4.4) | 14 (5.5) | 20 (7.9) | 5 (2.0) | 6 (2.4) | 3 (1.2) | 3 (1.2) |
| 지역 자치 | 33 (100.0) | 10 (30.3) | 14 (42.4) | 1 (3.0) | 0 (0.0) | 1 (3.0) | 4 (12.1) | 2 (6.1) | 0 (0.0) | 1 (3.0) | 0 (0.0) |
| 환경 | 111 (100.0) | 16 (14.4) | 16 (14.4) | 0 (0) | 65 (58.6) | 4 (3.6) | 8 (7.2) | 0 (0.0) | 2 (1.8) | 0 (0.0) | 0 (0.0) |
| 문화 | 22 (100.0) | 2 (9.1) | 1 (4.6) | 0 (0.0) | 0 (0.0) | 14 (63.6) | 5 (22.7) | 0 (0.0) | 0 (0.0) | 0 (0.0) | 0 (0.0) |
| 교육 학술 | 7 (100.0) | 0 (0.0) | 1 (14.3) | 0 (0.0) | 0 (0.0) | 0 (0.0) | 3 (42.9) | 0 (0.0) | 0 (0.0) | 1 (14.3) | 2 (28.6) |
| 종교 | 17 (100.0) | 3 (17.7) | 2 (11.8) | 0 (0.0) | 0 (0.0) | 2 (11.8) | 1 (5.9) | 7 (41.2) | 1 (5.9) | 0 (0.0) | 1 (5.9) |
| 노동 농 어 민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경제 | 14 (100.0) | 4 (28.6) | 2 (14.3) | 0 (0.0) | 1 (7.1) | 1 (7.1) | 5 (35.7) | 0 (0.0) | 1 (7.1) | 0 (0.0) | 0 (0.0) |
| 복지 | 128 (100.0) | 36 (28.1) | 10 (7.8) | 32 (25.0) | 6 (4.7) | 12 (9.4) | 14 (10.9) | 0 (0.0) | 2 (1.6) | 0 (0.0) | 16 (12.5) |

주: $\chi^2=623.9431$, $df=63$, $prob=0.0001$

3.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

비영리 민간단체는 상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단체가 지속적인 결사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의 대표적인 것인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간의 연대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신문분석을 통해 도출된 충남지역의 연대네트워크는 총 24개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 10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중규모의 연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연대네트워크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민사회가 1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환경으로 3개 연대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와 북한 및 통일은 각각 2개의 연대단체가, 그리고 교육학술, 노동 및 농어민, 그리고 여성은 각각 1개의 연대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대네트워크의 세부 참여단체를 살펴보면, 특정의 단체, 예컨대 아산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KYC 등의 소수 단체가 다양한 연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에서 도출되겠지만, 이들 단체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9>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

| 구분 | 연대단체명 | 참여기관 |
|------------------|-----------------|---|
| 시민 사회 (14) | 천안시민간단체 협력센터 | 천안예술인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지회, 천안 시민포럼,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천안지부, 풀뿌리희망재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천안시지회, 바르게살기 운동천안시협의회, 천안시변호사협회, 한국청년연합회천안지부, 천안시생활체육협의회 등 |
| | 참여산복지 네트워크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모임, 천안YMCA,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만세, 천안YWCA, 천안여성회, 충남성폭력상담소, 등대의집, 한빛회, 느티나무, 회정복지재단,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
| | 천안시민단체 협의회 | (사)천안여성의전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새교육공동체천안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지부,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
| | 공명선거운동본부 | 서산YMCA외 10개 기관 |
| | 범국민운동본부 | 조계종회, 충남주택관리사협회, 이웃사랑국민운동본부, 천안사회복지협의회, 평화통일자문위, NGO환경보호운동충남중앙회, 충남생활체육협의회 등 |
| | 서산시민모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다인테크, 중원 에스애피 등 |

<표 9>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계속)

| 구분 | 연대단체명 | 참여기관 |
|-----------|--|---|
| | 아산참여예산 시민네트워크 | 아산 YMCA, 아산시민모임, 아산농민회,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단법인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아산지부 등 |
| | 아산시 드림팀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 |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등 6개 |
| | 광덕산시립납골당 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 | 송악면농업경영인회, 거산초등학교충동창회, 한살림송악지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광덕산을지키는사람들,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등 |
| |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추진위원회 | 수덕사, 가야산철탑반대 불교대책위원회, 서산사암연합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
| | 충남·시민사회단 체 연대회의 | |
| | 충청권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청주YMCA, 천안시민포럼 등 50개 |
| | 미래충남사회단체 협의회 | 충남발전협의회, 민족통일충남협의회, 대전충남재향군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바르게살기운동충남도회,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 새마을운동, 국제라이온스, 국제로타리 등 28개 단체 |
| | 천안네트워크 | 민노총 천안시위원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충남 천안아산경실련(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10개 |
| 복지 (2) | 실내흡연 금지를 촉구하는 천안시민의 모임 | 천안 YWCA, 기독교연합회, 호서대, 남서울대, 천안대 등 |
| | (사)충남장애인 단체협의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남지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충남협회 등 10개 |
| 환경 (3) | 천안자원 순환네트워크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재활용센터 '행복한 가게', 천안KYC, 천안YMCA 등 |
| | 충남에너지시민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
| |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태안반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연대,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 등 |

<표 9>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네트워크(계속)

| 구분 | 연대단체명 | 참여기관 |
|----------------------|--------------------------|--|
| 교육 학술 (1) | 충남도지역특성화 교육협의회 |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사)한국여성농업충남연합회, (사)한국쌀전업충남연합회, 주요 대학 등 15개 |
| 노동및 농어민 (1) | 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연구회, 4h회 등 6개 |
| 북한 및 통일 (2) | 6.15공동선언실천 천안본부 |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등 20개 |
| | 천안아산통일연대 | 천안농민회, 아산농민회, 전교조천안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민주노동당천안을지구당, 민주노동당 충남학위, 충남지역노동조합, 통일로 가는 길, 나눔터, 천안KYC, 소리여울, 충남노동자문선대 |
| 여성 (1) | 베트남여성후인마이 사망사건후속대책위원회 |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등 100개 |

4. 조사대상 자료의 일반특성

1) 내용분석의 일반특성

본 연구를 위해서 최근 2년간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총 585건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목적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비정책적 활동(75.0%)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활동은 전체 활동의 25.0%에 불과하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 측면에서 볼 때, 시민사회가 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환경(14.2%), 지역자치(11.5%), 복지(10.4%), 교육학술(1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활동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북한 및 통일(0.9%), 경제(2.1%), 노동 및 농어민(2.4%), 그리고 여성(3.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주로 시민사회와 환경, 지역자치, 복지, 그리고 교육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 측면에서 볼 때, 전체 활동의 338건이 57.7%가 비영리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적 활동보다는 비협력적 활동을 약간 더 많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른 기관과 협력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한 경우는 13.5%이고,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18.1%,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에 협력한 경우는 10.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0> 조사대상 자료의 일반특성

(단위: 회,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전체 | | 585 | 100.0 |
| 활동목적 | 비정책적 | 439 | 75.0 |
| | 정책적 | 146 | 25.0 |
| 활동영역 | 시민사회 | 213 | 36.4 |
| | 지역자치 | 67 | 11.5 |
| | 복지 | 61 | 10.4 |
| | 환경 | 83 | 14.2 |
| | 문화 | 48 | 8.2 |
| | 교육학술 | 60 | 10.3 |
| | 노동 및 농어민 | 14 | 2.4 |
| | 경제 | 12 | 2.1 |
| | 북한 및 통일 | 5 | 0.9 |
| | 여성 | 22 | 3.8 |
| 협력여부 | 비영리 민간단체간 | 79 | 13.5 |
| | 타 기관 | 106 | 18.1 |
| | 비영리 + 타 기관 | 62 | 10.6 |
| | 비협력 | 338 | 57.8 |
| 공간범위 | 해당시군 | 468 | 80.0 |
| | 대전충남 | 95 | 16.2 |
| | 국내 타지역 | 16 | 2.7 |
| | 해외 | 6 | 1.0 |
| 연대결성 | 미결성 | 551 | 94.2 |
| | 결성 | 34 | 5.8 |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공간 범위를 살펴보면, 전체 활동의 80.0%가 해당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전충남의 공간범위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16.2%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활동범위는 해당 시군과 대전충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내 타 지역과 해외에서 활동한 경우는 각각 2.7%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섯째,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활동의 5.8%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시적 협력관계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문조사의 일반특성

(1) 설립목적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 50개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복지(22.7%)와 시민사회(18.2%), 그리고 환경(13.5%)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자치(18.2%)와 여성(13.6%), 교육·학술(9.1%)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문화, 종교, 노동 및 농어민 등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북한 및 통일, 그리고 기타는 각 2개 단체가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설립목적별 분포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설립목적은 주로 시민사회와 복지, 그리고 환경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일반적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11>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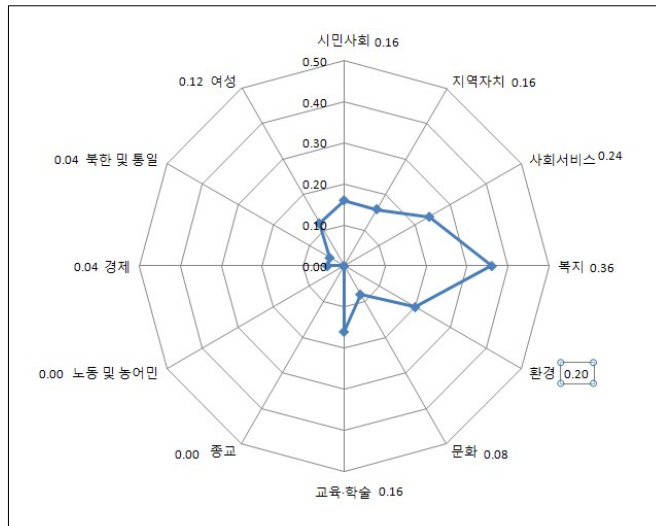
(단위: 개소, %)

| 구분 | 빈도 | 구성비 |
|----------|----|-------|
| 전체 | 44 | 100.0 |
| 시민사회 | 8 | 18.2 |
| 지역자치 | 4 | 9.1 |
| 사회서비스 | 0 | 0.0 |
| 복지 | 10 | 22.7 |
| 환경 | 6 | 13.6 |
| 문화 | 0 | 0.0 |
| 교육·학술 | 4 | 9.1 |
| 종교 | 0 | 0.0 |
| 노동 및 농어민 | 0 | 0.0 |
| 경제 | 2 | 4.5 |
| 북한 및 통일 | 2 | 4.5 |
| 여성 | 6 | 13.6 |
| 기타 | 2 | 4.5 |

(2) 활동영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활동영역을 활동여부로 조사하였다. 즉 활동을 하는 영역은 1로,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은 영역은 0으로 조사하였다. 활동영역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일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5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활동영역은 복지(0.36)와 사회서비스(0.24), 환경(0.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지역자치, 교육·학술은 각각 0.1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경제, 북한 및 통일, 종교, 노동 및 농어민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은 설립목적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가지 특징적인 것은 사회서비스영역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은 아니었지만, 사회서비스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주요 활동영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이 활동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

(3) 활동범위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범위는 공간적 영역을 기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 광역행정구역인 대전·충남, 국내 기타 지역, 그리고 해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고려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범위는 주로 해당 시군과 대전·충남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당 시군이 63.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대전·충남이 27.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타지역의 활동은 불과 7.2%에 불과하고 해외 활동은 1.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조사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범위

(단위: %)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해당 시군 | 50 | 63.8 | 36.81 |
| 대전·충남지역 | 50 | 27.8 | 32.05 |
| 국내 타 지역 | 50 | 7.2 | 15.14 |
| 해외 | 50 | 1.2 | 4.15 |

제4장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분석

제1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 분석

1. 활동범위적 특성

1) 설립목적별 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이 많은 설립목적은 지역자치(21.2%)이고, 타 기관과 협력이 많은 경우는 문화(54.6%)와 교육·학술(42.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에 협력하는 경우는 환경(12.6%)과 복지(12.5%)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협력의 비중이 많은 설립목적분야는 경제(71.4%)와 노동 및 농어민(6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설립목적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시민 사회 | 지역 자치 | 환경 | 문화 | 교육 학술 | 노동 농어민 | 경제 | 복지 |
|----------------|----------------|----------------|---------------|----------------|---------------|--------------|---------------|---------------|----------------|
| 총합 | 585 (100.0) | 253 (100.0) | 33 (100.0) | 111 (100.0) | 22 (100.0) | 7 (100.0) | 17 (100.0) | 14 (100.0) | 128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79 (13.5) | 33 (13.0) | 7 (21.2) | 15 (13.5) | 0 (0.0) | 2 (28.6) | 1 (5.9) | 2 (14.3) | 19 (14.8)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40 (15.8) | 3 (9.1) | 21 (18.9) | 12 (54.6) | 3 (42.9) | 4 (23.5) | 1 (7.1) | 22 (17.2) |
| 비영리+ 타기관 협력 | 62 (10.6) | 24 (9.5) | 4 (12.1) | 14 (12.6) | 2 (9.1) | 0 (0.0) | 1 (5.9) | 1 (7.1) | 16 (12.5) |
| 비협력 | 338 (57.8) | 156 (57.6) | 19 (57.6) | 61 (55.0) | 8 (36.4) | 2 (28.6) | 11 (64.7) | 10 (71.4) | 71 (55.5) |

주: $\chi^2=35.3927$, $df=21$, $prob=0.025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자치 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와 교육·학술분야는 타 기관과 협력을, 환경과 복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경제와 노동 및 농어민은 독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활동목적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은 크게 비정책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별로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정책적 목적은 정책적 목적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경우, 비정책적 목적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책적 목적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활동목적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비정책적 목적 | 정책적 목적 |
|------------|----------------|----------------|----------------|
| 총합 | 585 (100.0) | 439 (100.0) | 146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79 (13.5) | 35 (8.0) | 44 (30.1)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98 (22.3) | 8 (5.5)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48 (10.9) | 14 (9.6) |
| 비협력 | 338 (57.8) | 258 (77.4) | 80 (54.8) |

주: $\chi^2=57.4986$, $df=3$,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별로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정책적 목적은 정책적 목적에 비해서 비협력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비정책적 목적은 타 기관과 협력하는 반면, 정책적 목적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이 정책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활동목적이 비정책적인 경우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3) 활동영역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별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이 많은 활동영역은 북한 및 통일(40.0%), 지역자치(28.4%), 환경(19.3%)이고, 타 기관과 협력이 많은 경우는 문화(43.8%)이다.

한편 활동영역별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동시에 협력하는 경우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활동영역은 경제(83.3%), 여성(81.8%), 복지(72.1%), 노동 및 농어민(71.4%), 그리고 교육·학술(65.0%)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별로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학술은 비협력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표 15> 활동영역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시민사회 | 지역자치 | 복지 | 환경 | 문화 |
|---------------|----------------|----------------|---------------|---------------|---------------|---------------|
| 총합 | 585 (100.0) | 213 (100.0) | 67 (100.0) | 61 (100.0) | 83 (100.0) | 48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79 (13.5) | 21 (9.9) | 19 (28.4) | 8 (13.1) | 16 (19.3) | 4 (8.3)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38 (17.8) | 10 (14.9) | 6 (9.8) | 15 (18.1) | 21 (43.8)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21 (9.9) | 8 (11.9) | 3 (4.9) | 15 (18.1) | 8 (16.7) |
| 비협력 | 338 (57.8) | 133 (62.4) | 30 (44.8) | 44 (72.1) | 37 (44.6) | 15 (31.3) |

| 구분 | 교육학술 | 노동 및 농어민 | 경제 | 북한 및 통일 | 여성 | |
|---------------|---------------|---------------|---------------|--------------|---------------|--|
| 총합 | 60 (100.0) | 14 (100.0) | 12 (100.0) | 5 (100.0) | 22 (100.0) |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6 (10.0) | 0 (0.0) | 2 (16.7) | 2 (40.0) | 1 (4.6) | |
| 타 기관과 협력 | 12 (20.0) | 2 (14.3) | 0 (0.0) | 1 (20.0) | 1 (4.6) |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3 (5.0) | 2 (14.3) | 0 (0.0) | 0 (0.0) | 2 (9.1) | |
| 비협력 | 39 (65.0) | 10 (71.4) | 10 (83.3) | 2 (40.0) | 18 (81.8) | |

주: $\chi^2=77.2665$, $df=27$, $prob=0.0001$

4) 활동공간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공간별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이 많은 공간수준은 해외(33.3%)와 국내 타지역(25.0%)으로 나타나고 있고, 타 기관과 협력은 국내 타 지역(2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경우와 비협력의 경우는 활동공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공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해당 시군(80.0)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활동공간의 수준에 따라 활동특성이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6> 활동공간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해당 시군 | 대전·충남 | 국내 타지역 | 해외 |
|------------|----------------|----------------|---------------|---------------|--------------|
| 총합 | 585 (100.0) | 468 (100.0) | 95 (100.0) | 16 (100.0) | 6 (100.0)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79 (13.5) | 56 (12.0) | 17 (17.9) | 4 (25.0) | 2 (33.3)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88 (18.8) | 14 (14.7) | 4 (25.0) | 0 (0.0)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47 (10.0) | 14 (14.7) | 1 (6.3) | 0 (0.0) |
| 비협력 | 338 (57.8) | 277 (59.2) | 50 (52.6) | 7 (43.8) | 4 (66.7) |

주: $\chi^2=11.5313$, $df=9$, $prob=0.2410$

2. 활동형태적 특성

1) 활동대상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대상별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하는 경우는 정당(100.0%), 의회(42.9%), 정부(32.9%), 공공기관(37.5%), 기업(36.4%) 등이고,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교육기관(5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사회단체(57.1%)인 반면에, 비협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자체조직회원(72.6%), 대중(60.9%), 기타(5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활동대상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정부 | 의회 | 사법부 | 정당 | 대중 |
|---------------|----------------|---------------|--------------|--------------|--------------|----------------|
| 총합 | 585 (100.0) | 73 (100.0) | 7 (100.0) | 3 (100.0) | 1 (100.0) | 394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79 (13.5) | 24 (32.9) | 3 (42.9) | 0 (0.0) | 1 (100.0) | 33 (8.4)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5 (6.9) | 0 (0.0) | 0 (0.0) | 0 (0.0) | 81 (20.6)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5 (6.9) | 1 (14.3) | 0 (0.0) | 0 (0.0) | 40 (10.2) |
| 비협력 | 338 (57.8) | 39 (53.4) | 3 (42.9) | 3 (100.0) | 0 (0.0) | 240 (60.9) |

| 구분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기업 | 사회단체 | 자체조직 회원 | 기타 |
|---------------|--------------|--------------|---------------|---------------|---------------|---------------|
| 총합 | 8 (100.0) | 4 (100.0) | 11 (100.0) | 21 (100.0) | 51 (100.0) | 12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3 (37.5) | 0 (0.0) | 4 (36.4) | 6 (28.6) | 3 (5.9) | 2 (16.7) |
| 타 기관과 협력 | 3 (37.5) | 2 (50.0) | 1 (9.1) | 2 (9.5) | 9 (17.7) | 3 (25.0)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0 (0.0) | 1 (25.0) | 0 (0.0) | 12 (57.1) | 2 (3.9) | 1 (8.3) |
| 비협력 | 2 (25.0) | 1 (25.0) | 6 (54.6) | 1 (4.8) | 37 (72.6) | 6 (50.0) |

주: $\chi^2=133.0535$, $df=30$, $prob=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대상별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체조직회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동대상을 할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사회단체를 활동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활동대상이 공공기관 등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경우는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에, 활동대상이 자체 조직회원이거나 일반 대중인 경우는 오히려 비영리 민간단체가 비협력적 활동을 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활동방식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방식별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이 많은 경우는 대중집회(60.0%)와 성명서·결의문(344%)의 활동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활동방식이 선전 및 캠페인(21.2%)과 캠페인+유지활동(34.6%)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간담회(36.4%)인 경우이다. 반면 비협력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활동방식이 청원서(75.0%), 기자회견 및 보도(65.7%), 자체 조직의 유지활동(64.8%)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방식별 활동특성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중집회와 성명서·결의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전·캠페인과 캠페인+유지활동의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청원서, 기자회견·보도, 유지활동은 비협력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각종 활동을 수행할 경우는 주로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는 반면, 청원서 등의 권력지향적 활동을 하거나 조직내부의 유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표 18> 활동방식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간담회 | 청원서 | 기자회견 및 보도 | 대중집회 |
|---------------|----------------|---------------|--------------|---------------|--------------|
| 총합 | 585 (100.0) | 11 (100.0) | 4 (100.0) | 99 (100.0) | 5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79 (13.5) | 2 (18.2) | 1 (25.0) | 22 (22.2) | 3 (60.0)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4 (36.4) | 0 (0.0) | 5 (5.1) | 0 (0.0)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4 (36.4) | 0 (0.0) | 7 (7.1) | 0 (0.0) |
| 비협력 | 338 (57.8) | 1 (9.1) | 3 (75.0) | 65 (65.7) | 2 (40.0) |

| 구분 | 성명서/ 결의문 | 선전 및 캠페인 | 유지활동 | 강연회 및 특강 | 캠페인+ 유지활동 |
|---------------|---------------|----------------|----------------|---------------|---------------|
| 총합 | 32 (100.0) | 170 (100.0) | 139 (100.0) | 47 (100.0) | 78 (100.0) |
| 비영리 단체간 협력 | 11 (34.4) | 15 (8.8) | 8 (5.8) | 9 (19.2) | 8 (10.3) |
| 타 기관과 협력 | 1 (3.1) | 36 (21.2) | 26 (18.7) | 7 (14.9) | 27 (34.6)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1 (3.1) | 22 (12.9) | 15 (10.8) | 7 (14.9) | 6 (7.7) |
| 비협력 | 19 (59.4) | 97 (57.1) | 90 (64.8) | 24 (51.1) | 37 (47.4) |

주: $\chi^2=87.0469$, $df=24$, $prob=0.0001$

3) 연대결성별 활동특성

비영리 민간단체의 연대결성별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연대 미결성은 주로 비협력적 활동(61.3%)과 타 기관과 협력(9.6%)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연대결성은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력(76.5%)과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연대결성의 유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대 미결성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과 타 기관과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결성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연대결성별 활동특성

(단위: 건, %)

| 구분 | 전체 | 연대 미결성 | 연대 결성 |
|------------|----------------|----------------|---------------|
| 총합 | 585 (100.0) | 551 (100.0) | 34 (100.0)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79 (13.5) | 53 (9.6) | 26 (76.5) |
| 타 기관과 협력 | 106 (18.1) | 106 (19.2) | 0 (0.0)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2 (10.6) | 54 (9.8) | 8 (23.5) |
| 비협력 | 338 (57.8) | 338 (61.3) | 0 (0.0) |

주: $\chi^2=139.0739$, $df=3$, $prob=0.0001$

한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가 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한 34건의 활동에는 총 24개의 연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결성된 연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에너지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천안본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아산참여예산시민연대, 천안자원순환네트워크, 충남북부권상생협력갈등관리포럼, 광덕산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 실내흡연금지를 촉구하는 천안시민의 모임, 충청남도지역특성화교육협의회,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시드림팀추진반대시민사회단체, 금산농업인단체협의회, 베트남 여성 후인마이 사망 사건 후속대책위원회, 시민네트워크쓰레기줍기위원회, 가야산지기키시민연대추진위원회, 천안네트워크, 공명선거운동본부,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태안반도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충돌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위원회,

천안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 등의 연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협력기관 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평균 기관수는 2.30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른 기관과 활발히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협력기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의 평균 협력기관수는 9.79개 기관이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41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타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경우 평균 협력기관수는 1.42개 기관이다. 그리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력기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협력기관 수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개 이상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개 정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하는 경우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에 비해서 협력기관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협력기관 수

(단위: 개소)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80 | 2.30 | 7.02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75 | 9.79 ^a | 15.49 |
| 타 기관과 협력 | 106 | 1.42 ^c | 0.87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61 | 7.41 ^b | 7.13 |
| 비협력 | 338 | 0.00 ^c | 0.00 |

주: F-값=70.46, Prob=0.0001

3. 활동규모적 특성

1) 활동건수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일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건수를 살펴보면,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5.25회이고, 비협력한 경우는 2.25회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한 경우는 1.67회이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1.53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동일목적을 위해서 반복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활동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활동건수

(단위: 회)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62 | 2.65 | 11.81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76 | 1.67 ^{ab} | 2.95 |
| 타 기관과 협력 | 103 | 5.25 ^a | 24.21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57 | 1.53 ^b | 2.84 |
| 비협력 | 326 | 2.25 ^{ab} | 7.13 |

주: F-값=2.15, Prob=0.0929

2) 활동기간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일 활동을 연속적으로 지속한 활동기간은 평균 1.19일로 당일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협력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하는 경우는 1.01일,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19일,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1.13일, 그리고 비협력인 경우는 1.24일의 활동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유형과 관계 없이 주로 당일 행사 위주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2> 활동기간

(단위: 일)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14 | 1.19 | 2.43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68 | 1.01 | 0.12 |
| 타 기관과 협력 | 96 | 1.19 | 0.90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54 | 1.13 | 0.95 |
| 비협력 | 296 | 1.24 | 3.14 |

주: F-값=0.18, Prob=0.9131

3) 참여인원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참여인원은 690.76명인 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참여인원이 대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규모의 행사일수록 지역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별로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은 399.35명이고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478.39명,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28.04명, 그리고 비협력의 경우는 792.37명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참여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고, 이들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규모는 수 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표 23> 참여인원

(단위: 명)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199 | 690.76 | 2,226.36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17 | 399.35 | 633.87 |
| 타 기관과 협력 | 38 | 478.39 | 639.04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25 | 728.04 | 1367.43 |
| 비협력 | 119 | 792.37 | 2,777.92 |

주: F-값=0.29, Prob=0.8296

4) 활동비용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다룬 지역언론 기사에서 활동비용과 관련된 항목은 총 6건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지역신문에 제시된 6건의 기사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평균 활동비용은 26,916,666.67원으로 활동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활동비용을 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활동비용이 100,000,000.00원인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는 5,250,000.00원, 그리고 비협력인 경우는 17,0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형태의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규모는 협력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18)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역신문만을 이용할 경우 다룰 수 있는 내용적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을 이용한 1차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표 24> 활동비용

(단위: 원)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6 | 26,916,666.67 | 38,497,294.28 |
| 비영리단체간 협력 | 2 | 5,250,000.00 ^b | 1,060,660.17 |
| 타 기관과 협력 | 1 | 100,000,000.00 ^a | . |
| 비영리+타기관 협력 | 0 | .- | .- |
| 비협력 | 3 | 17,000,000.00 ^b | 20,420,577.86 |

주: F-값=11.81, Prob=0.0378

4. 소결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활동범위와 활동형태, 그리고 활동규모는 차별성과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활동범위적 소결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 자치 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와 교육·학술분야는 타 기관과 협력을, 환경과 복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경제와 노동 및 농어민은 독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이 정책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활동목적이 비정책적인 경우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별로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학술은 비협력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공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해당 시군(80.0)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활동공간의 수준에 따라 활동특성이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활동형태적 소결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대상별 활동특성에 차이가 있다. 즉 자체조직회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동대상을 할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사회단체를 활동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방식별 활동특성에 통계적 차이가 있다. 즉 대중집회와 성명서·결의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전·캠페인과 캠페인+유지활동의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청원서, 기자회견·보도, 유지활동은 비협력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대결성의 유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대 미결성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과 타 기관과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결성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협력기관 수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개 이상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개 정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특성의 종합

| 구분 | |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 타 기관과 협력 | 비영리 + 타 기관과 협력 | 비협력 |
|----------|-------|------------------------------|----------------------|-------------------|---------------------------------------|
| 활동 범위 | 설립목적 | 지역자치 | 문화 교육 · 학술 | 환경 복지 | 경제 노동 및 농어민 |
| | 활동목적 | 정책적 목적 | (비정책적 목적) | - | 비정책적 목적 |
| | 활동영역 |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 | 문화 | - |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 · 학술 |
| | 활동공간 | 해당 시군 | 해당 시군 | 해당 시군 | 해당 시군 |
| 활동 형태 | 활동대상 |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 교육기관 | 사회단체 | 자체조직회원 대중 기타 |
| | 활동방식 | 대중집회 성명서 · 결의문 | 선전 · 캠페인 캠페인+유지활동 | 간담회 | 청원서 기자회견 · 보도 유지활동 |
| | 연대결성 | 연대 결성 | (연대 미결성) | (연대 결성) | 연대 미결성 |
| | 협력기관수 | 많음 | 적음 | 많음 | - |
| 활동 규모 | 활동건수 | 적음 | 많음 | 적음 | 적음 |
| | 활동기간 | 1일 | 1일 | 1일 | 1일 |
| | 참여인원 | 대규모 | 대규모 | 대규모 | 대규모 |
| | 활동비용 | 중소규모 | 대규모 | - | 중소규모 |

3) 활동규모별 소결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별로 활동건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동일목적을 위해서 반복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활동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유형과 관계없이 주로 당일 행사 위주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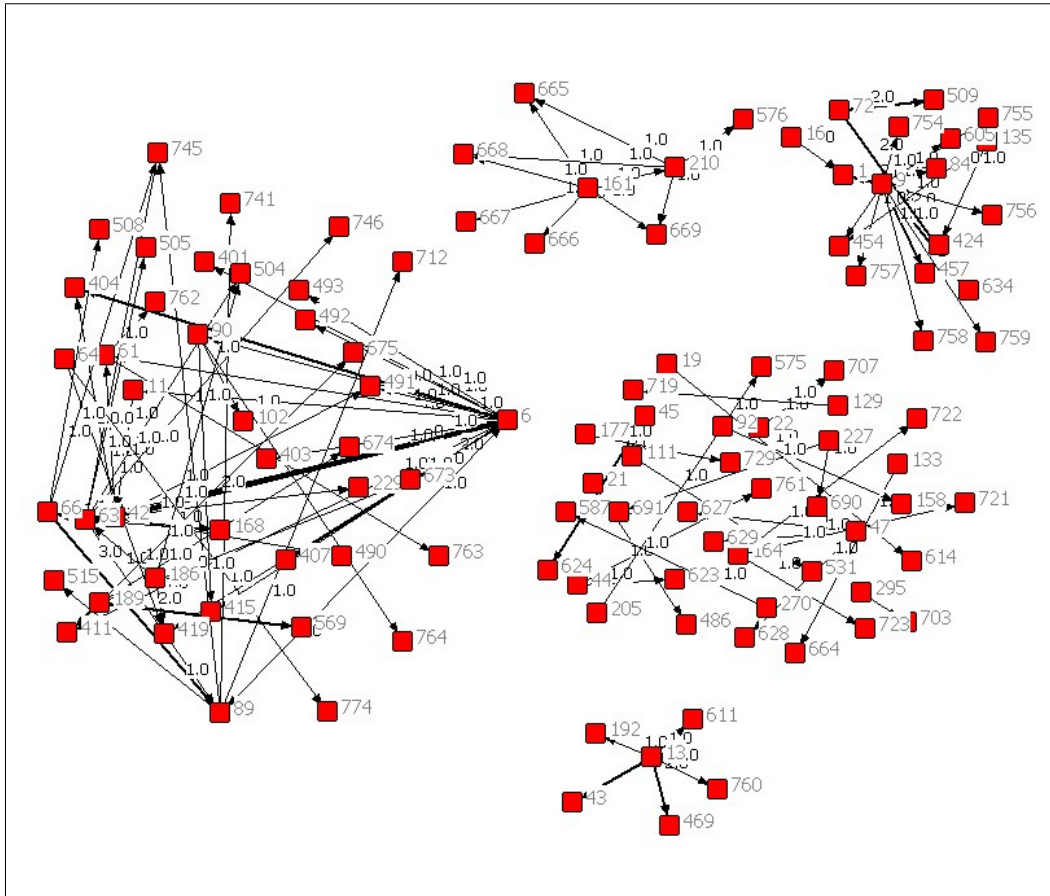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참여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고, 이들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규모는 수 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규모는 협력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제2절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1.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에는 34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총 89개의 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민간단체간 관계는 단 한번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에서는 총 5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하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발전협의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천안YMCA,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 등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에서 지속성을 갖는 단체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천안YMCA의 협력구조, 그리고 천안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아산YMCA의 협력구조를 꼽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 YMCA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매개중심성은 낮지만 중심성이 높은 충남발전협의회와 서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포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하위 집단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5개의 단체를 서로 연결하는 교류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26>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inDeg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24 | 3 | 3.636 | 0.455 |
| 9 | 충남발전협의회 | 15 | 0 | 2.273 | 0 |
| 63 | 복지세상을열어 가는시민모임 | 9 | 3 | 1.364 | 0.455 |
| 13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8 | 0 | 1.212 | 0 |
| 42 | 천안YMCA | 7 | 8 | 1.061 | 1.212 |
| 189 | 청양시민연대 | 7 | 0 | 1.061 | 0 |
| 66 | 천안기독교윤리 실천운동 | 6 | 1 | 0.909 | 0.152 |
| 161 | 사단법인 한빛회 | 6 | 0 | 0.909 | 0 |
| 89 | 아산YMCA | 5 | 5 | 0.758 | 0.758 |
| 210 | 유관순정신계승 사업회 | 4 | 1 | 0.606 | 0.152 |
| 72 |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 4 | 0 | 0.606 | 0 |
| 47 | 서천환경운동연합 | 3 | 0 | 0.455 | 0 |
| 186 | 굿네이버스 충남지부 | 3 | 0 | 0.455 | 0 |
| 164 |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 3 | 0 | 0.455 | 0 |
| 90 | 아산YWCA | 3 | 1 | 0.455 | 0.152 |
| 45 | 조치원YWCA | 2 | 0 | 0.303 | 0 |
| 135 | 당진환경운동연합 | 2 | 0 | 0.303 | 0 |

<표 26>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중심성(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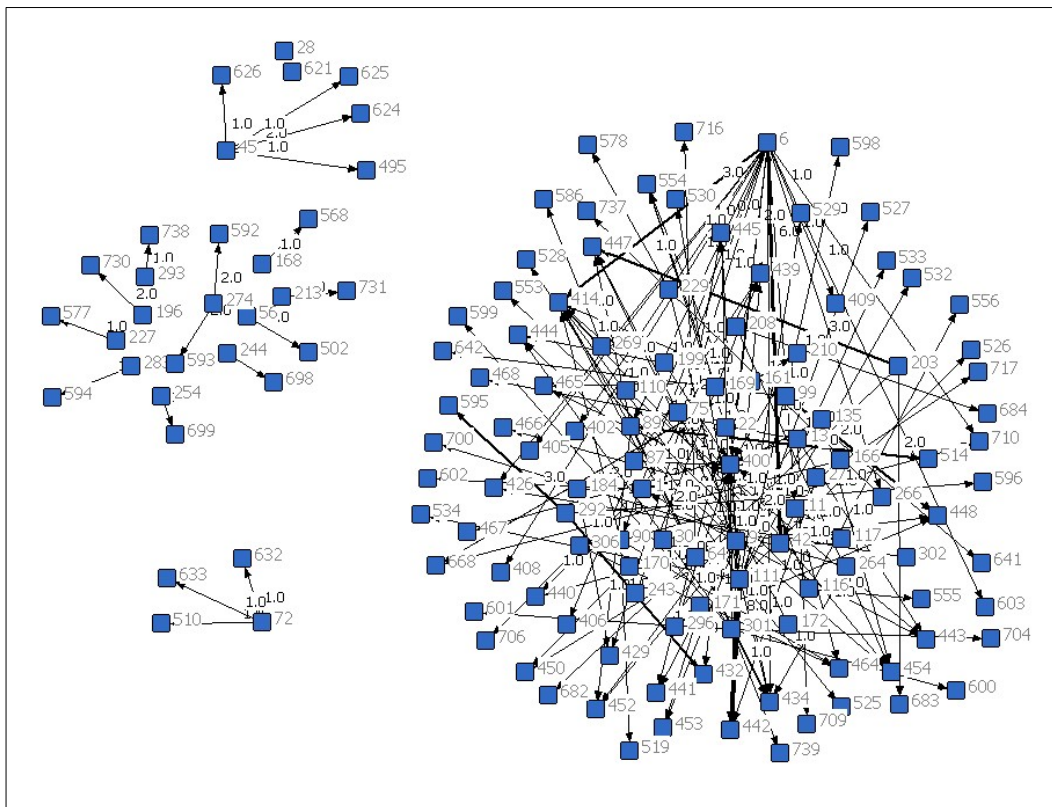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InDeg |
|---|---------------|-----------|----------|-----------|----------|
| 44 | 홍성YMCA | 2 | 0 | 0.303 | 0 |
| 227 | 계룡산보전시민모임 | 2 | 0 | 0.303 | 0 |
| 61 | 천안시민포럼 | 2 | 2 | 0.303 | 0.303 |
| 64 | 천안녹색 소비자연대 | 2 | 0 | 0.303 | 0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outdegree) | | | | 0.49% |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indegree) | | | | 41.0% | |

<표 27>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Betweenness | nBetweenness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101 | 0.842 |
| 63 | 복지세상을열어 가는시민모임 | 68.5 | 0.571 |
| 42 | 천안YMCA | 58.5 | 0.488 |
| 89 |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 | 56 | 0.467 |
| 90 | 아산YWCA | 14 | 0.117 |
| 61 | 천안시민포럼 | 14 | 0.117 |
| 66 | 아산시민모임 | 6 | 0.05 |
| 21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 1 | 0.008 |
|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 | 0.83% |

2.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총 54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88개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비해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타 기관과 네트워크 중심성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의 중심성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지배적인 하나의 거대 하위 집단과 파편화된 소수의 작은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천안 아산환경운동조합과 충남발전협의회, (사)대천관광협회, 백제가야금연주단, 그리고 아산 YMCA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조합과 천안YMCA, 아산YMCA, 천안 KYC, 천안YWCA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천안아산환경운동조합과 지역 YMC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타 기관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InDeg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26 | 3 | 2.305 | 0.266 |
| 9 | 충남발전협의회 | 21 | 0 | 1.862 | 0 |
| 111 | (사)대천관광협회 | 20 | 0 | 1.773 | 0 |
| 301 | 백제가야금연주단 | 10 | 0 | 0.887 | 0 |
| 89 | 아산YMCA | 10 | 1 | 0.887 | 0.089 |
| 292 | 충남 국학원 | 8 | 0 | 0.709 | 0 |
| 99 | 부여군자율방범연합대 | 7 | 0 | 0.621 | 0 |
| 203 |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 7 | 0 | 0.621 | 0 |
| 13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6 | 0 | 0.532 | 0 |
| 1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6 | 2 | 0.532 | 0.177 |
| 90 | 천안YWCA | 5 | 1 | 0.443 | 0.089 |
| 11 | 천안KYC | 5 | 1 | 0.443 | 0.089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outdegree) | | | | 2.19% |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indegree) | | | | 1.4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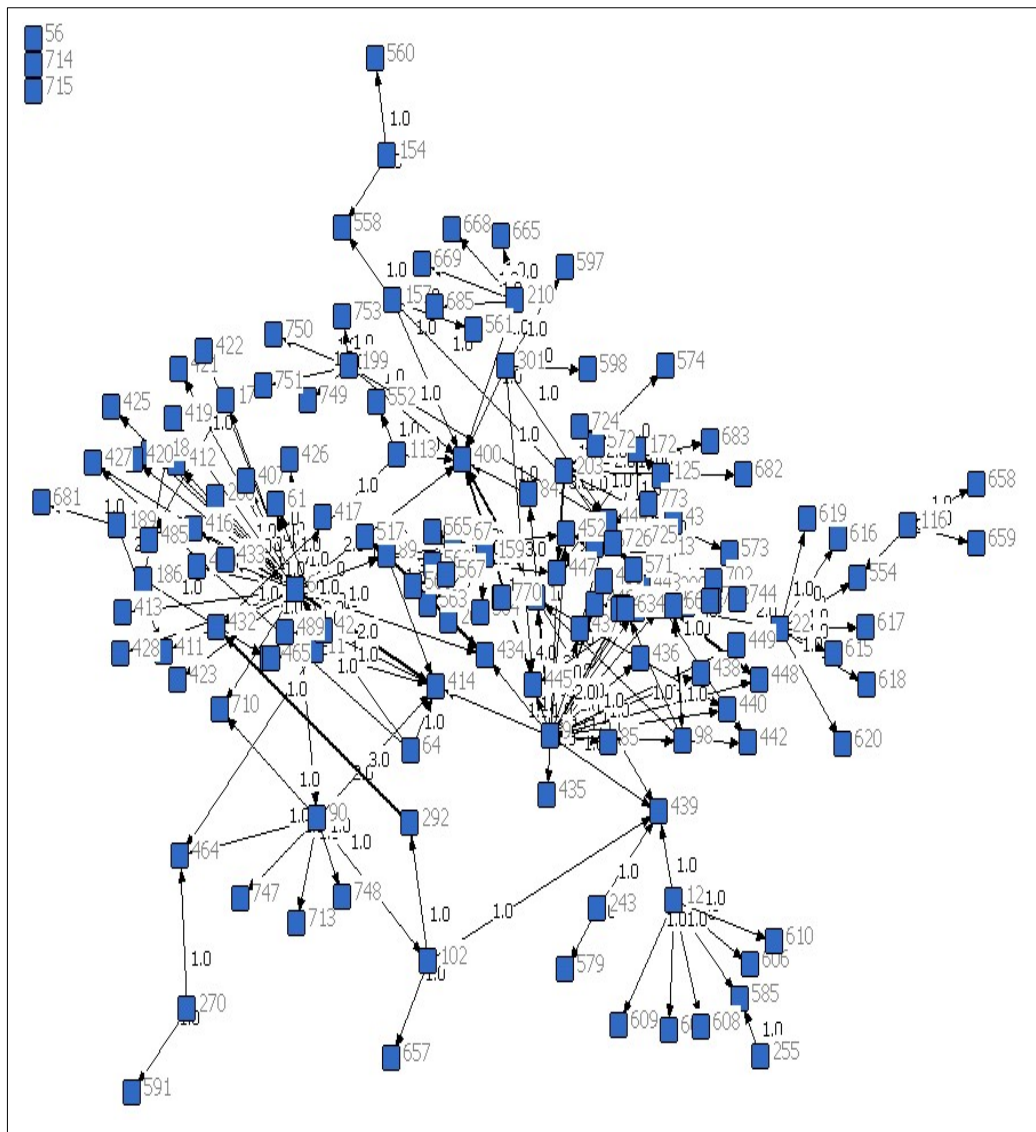
<표 29> 타 기관과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Betweenness | nBetweenness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64 | 0.324 |
| 42 | 천안YMCA | 21 | 0.106 |
| 89 | 아산YMCA | 9 | 0.046 |
| 11 | 천안KYC | 7.5 | 0.038 |
| 90 | 천안YWCA | 5.5 | 0.028 |
| 266 |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 4 | 0.02 |
| 21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 1 | 0.005 |
| 1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1 | 0.005 |
|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 | 0.32% |

3.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조

비영리 민간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49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252개의 다른 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동일영역 및 유사 단체와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이질적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비영리 민간단체간,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발전협의회, JCI-Korea 충남지구, 천안 여성의 전화,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연기군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아산YMCA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집단으로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여성의 전화, 천안 YWCA, 천안 YMCA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 구조

<표 30>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lnDeg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42 | 3 | 2.405 | 0.172 |
| 9 | 충남발전협의회 | 41 | 0 | 2.348 | 0 |
| 113 | JCI KOREA-충남지구 | 20 | 0 | 1.145 | 0 |
| 102 | 천안 여성의전화 | 20 | 1 | 1.145 | 0.057 |
| 13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19 | 0 | 1.088 | 0 |
| 203 |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 11 | 0 | 0.63 | 0 |
| 89 | 아산YMCA | 10 | 1 | 0.573 | 0.057 |
| 98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 | 9 | 2 | 0.515 | 0.115 |
| 90 | 천안YWCA | 9 | 1 | 0.515 | 0.057 |
| 22 |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 | 9 | 0 | 0.515 | 0 |
| 159 |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 | 8 | 0 | 0.458 | 0 |
| 189 | 청양시민연대 | 8 | 0 | 0.458 | 0 |
| 12 | 태안군 자율방범연합대 | 7 | 0 | 0.401 | 0 |
| 42 | 천안YMCA | 7 | 7 | 0.401 | 0.401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outdegree) | | | | 2.34% |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indegree) | | | | 0.79% | |

<표 31> 비영리 + 타 기관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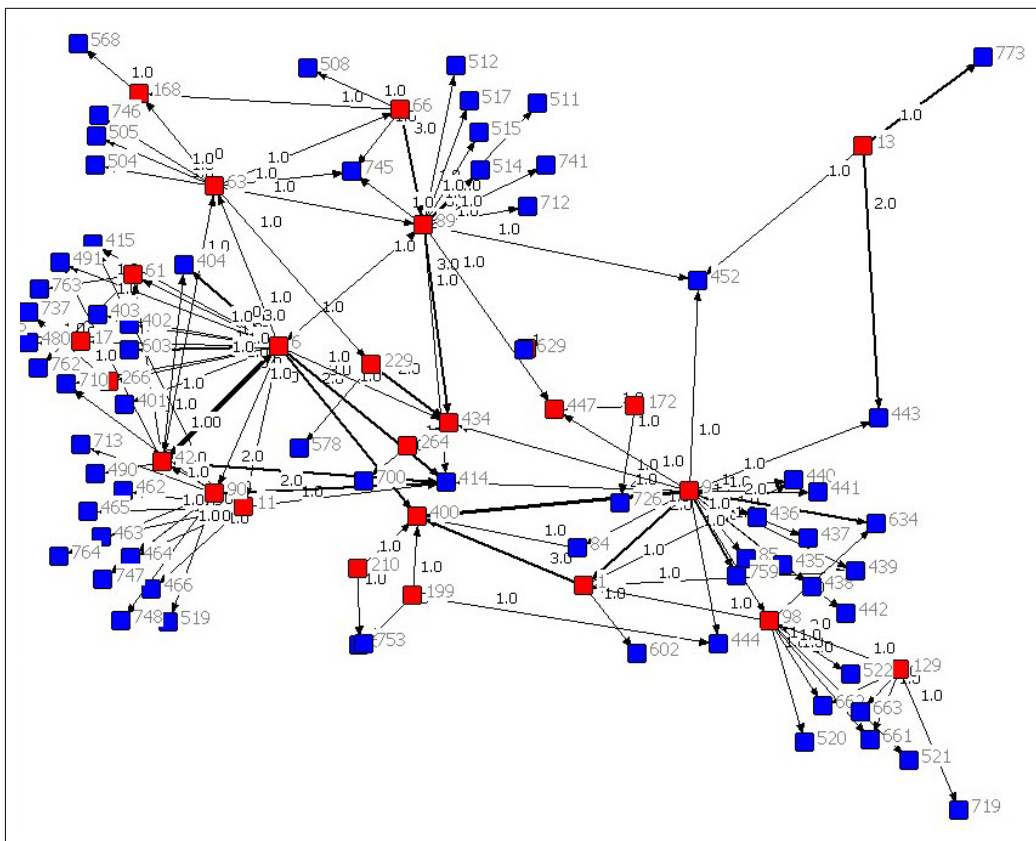
| 번호 | 기관명 | Betweenness | nBetweenness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199 | 0.236 |
| 102 | 천안 여성의전화 | 101 | 0.12 |
| 90 | 천안YWCA | 97.5 | 0.116 |
| 42 | 천안YMCA | 72 | 0.085 |
| 17 |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 24 | 0.028 |
| 98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 | 15 | 0.018 |
| 89 | 아산YMCA | 15 | 0.018 |
| 11 | 천안KYC | 10.5 | 0.012 |
| 1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6 | 0.007 |
| 172 | 연기군 여성단체협의회 | 3 | 0.004 |
| 292 | 충남 국학원 | 2 | 0.002 |
| 264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 1 | 0.001 |
|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 | 0.23% |

4.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의 종합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는 총 9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385개의 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 타 기관과 네트워크,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기관과 동시 협력네트워크의 구조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주 많은 단체와 협력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지 않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천안아산환경운동

연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모두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단체간의 구조적 공백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중심성이 높은 단체로는 충남발전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천안 YMCA, 천안 YWCA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집단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아산 YMCA, 천안 YMV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바르게살기운동천안시협의회, 천안 YWCA, 천안 KYC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천안 YMC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는 지리적 편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InDeg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58 | 3 | 2.894 | 0.15 |
| 9 | 충남발전협의회 | 48 | 0 | 2.395 | 0 |
| 13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27 | 0 | 1.347 | 0 |
| 89 | 아산YMCA | 17 | 5 | 0.848 | 0.25 |
| 42 | 천안YMCA | 11 | 8 | 0.549 | 0.399 |
| 90 | 천안YWCA | 10 | 1 | 0.499 | 0.05 |
| 47 | 서천환경운동연합 | 9 | 0 | 0.449 | 0 |
| 63 | 복지세상을열어 가는시민모임 | 9 | 2 | 0.449 | 0.1 |
| 98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 | 9 | 2 | 0.449 | 0.1 |
| 11 | 천안KYC | 7 | 1 | 0.349 | 0.05 |
| 1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6 | 3 | 0.299 | 0.15 |
| 199 |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 6 | 0 | 0.299 | 0 |
| 66 | 아산시민모임 | 6 | 1 | 0.299 | 0.05 |
| 21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충청남도지부 천안시지회 | 6 | 0 | 0.299 | 0 |
| 17 |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 6 | 1 | 0.299 | 0.05 |

<표 32>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중심성(계속)

| 번호 | 기관명 | OutDegree | InDegree | NrmOutDeg | NrmInDeg |
|---|----------------------|-----------|----------|-----------|----------|
| 129 | 색동회천안지회 | 5 | 1 | 0.25 | 0.05 |
| 172 | 연기군 여성단체협의회 | 4 | 0 | 0.2 | 0 |
| 229 | (사)충남장애인 부모회아산지회 | 3 | 1 | 0.15 | 0.05 |
| 61 | 천안시민포럼 | 2 | 2 | 0.1 | 0.1 |
| 264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 2 | 0 | 0.1 | 0 |
| 168 |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1 | 2 | 0.05 | 0.1 |
| 84 | 충청남도새마을회 | 1 | 1 | 0.05 | 0.05 |
| 266 |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 1 | 1 | 0.05 | 0.05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outdegree) | | | | 2.87% | |
| Total Network Centralization(indegree) | | | | 0.56% | |

<표 33>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번호 | 기관명 | Betweenness | nBetweenness |
|------------------------------|---------------------|-------------|--------------|
| 6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320 | 0.288 |
| 89 | 아산YMCA | 149 | 0.134 |
| 42 | 천안YMCA | 127 | 0.114 |
| 63 | 복지세상을열어 가는시민모임 | 53.5 | 0.048 |
| 17 |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 36 | 0.032 |
| 90 | 천안YWCA | 32.5 | 0.029 |
| 11 | 천안KYC | 22.5 | 0.02 |
| 98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 | 17 | 0.015 |
| 61 | 천안시민포럼 | 12 | 0.011 |
| 1 |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 9 | 0.008 |
| 29 | (사)충남장애인 부모회아산지회 | 6.5 | 0.006 |
| 66 |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 6 | 0.005 |
| 68 |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6 | 0.005 |
| 66 | 아산시민모임 | 5 | 0.004 |
| 29 | 색동회천안지회 | 2 | 0.002 |
|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 | 0.29% |

제3절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의 활성화 방안

1. 협력의 필요성과 연대활동

1) 협력의 필요성과 정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48개 단체 중에서 타 기관과 협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단체는 26개소(54.2%)이고,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단체는 18개소(37.5%)이다. 반면에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불과 2개소(4.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타 기관과 협력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34> 협력의 필요성 및 협력정도

(단위: 개소, %)

| 구분 | | 빈도 | 구성비 |
|------------|------------|----|-------|
| 협력의 필요성 | 전체 | 48 | 100.0 |
| | 매우 많이 필요 | 26 | 54.2 |
| | 필요 | 18 | 37.5 |
| | 보통 | 2 | 4.2 |
| | 필요하지 않음 | 2 | 4.2 |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0 | 0.0 |
| 협력 정도 | 전체 | 48 | 100.0 |
| | 매우 많이 협력 | 12 | 25.0 |
| | 협력 | 24 | 50.0 |
| | 보통 | 10 | 20.8 |
| | 협력하지 않음 | 2 | 4.2 |
| | 전혀 협력하지 않음 | 0 | 0.0 |

한편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관 중 매우 많은 협력을 하는 단체는 12개소(25.0%)이고, 주로 협력을 하는 단체는 24개소(50.0%)이다. 반면에 협력

을 하지 않는 단체는 불과 2개소(4.2%)개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50개 단체의 1회에 평균 참여하는 협력단체는 평균적으로 11.4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 민간단체는 타 기관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1회에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타 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고,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타 기관과 활발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단체일수록 타 기관과 활발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상시적 연대활동

특정 목적을 위해서 2개 이상이 상시적으로 협력을 하는 연대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46개 단체 중에서 18개(39.1%) 단체가 상시적 연대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참여할 예정인 기관은 10개(21.7%)이다. 반면에 과거에 참여했으나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10개소(21.7%)이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8개소(17.4%)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상시적인 연대기관을 통해서 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연대단체는 총 24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야산연대, 금빛여가복지대학, 내포문화숲길협력위원회, 단군봉안회, 유관순유적지킴이단체, 미래충남사회단체협의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삼교호수 계보전네트워크,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 자연보호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천안지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미협, 충남2080가족성상담센터,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푸른충남 21추진협의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 호스피스완화 의료협회 충남지부,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상시적 연대활동

(단위: 개소, %)

| 구분 | 빈도 | 구성비 |
|--------------|----|-------|
| 전체 | 46 | 100.0 |
| 참여하고 있음 | 18 | 39.1 |
| 과거 참여 현재 미참여 | 10 | 21.7 |
| 참여하지 않고 있음 | 8 | 17.4 |
| 향후 참여할 예정 | 10 | 21.7 |

2. 협력활동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 협력활동의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협력활동의 만족도, 신뢰도, 그리고 유용성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협력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에 있어서 50개 단체 모두 만족도, 신뢰도,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활동의 만족도는 3.88이고, 신뢰도는 4.04, 그리고 유용성은 3.88로 모두 협력활동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타 기관과 협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제 협력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타 기관과 협력활동의 평가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50 | 3.93 | 0.57 |
| 협력적 활동의 만족도 | 50 | 3.88 | 0.60 |
| 협력적 활동의 신뢰도 | 50 | 4.04 | 0.68 |
| 협력적 활동의 유용성 | 50 | 3.88 | 0.60 |

주: 평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2) 협력활동의 활성화 방안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타 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단체의 수와 협력기관을 바탕으로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많은 단체와 지속적 협력을 하는 경우와 많은 단체와 일시적 참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소수 단체와 지속적 협력을 하는 경우와 소수 단체와 일시적 참여를 하는 경우로 구분이 가능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와 지속적 협력(4.13)을 함과 동시에 독자적 활동이 증대(3.83)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타 기관과 일시적 참여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7> 협력활동의 활성화 방안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독자적 활동 증대 | 44 | 3.83 | 0.94 |
| 많은 단체 + 일시적 참여 증대 | 44 | 3.27 | 0.83 |
| 많은 단체 + 지속적 참여 증대 | 46 | 4.13 | 1.06 |
| 소수 단체 + 일시적 참여 증대 | 46 | 3.09 | 0.79 |
| 소수 단체 + 지속적 참여 증대 | 46 | 3.57 | 0.95 |

주: 활성화 방안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3. 협력의 편익과 애로사항

1) 협력의 편익

일반적으로 타 기관과 협력 하는 경우 협력기관이 향유할 수 있는 편익은 목표달성의 용이, 거래비용의 감소와 새로운 기회의 창출, 그리고 자원의 공동이유의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타 기관과 상호작용의 증대 등의 편익을 향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편익을 예산의 절감, 새로운 정보의 기회, 새로운 활동기회의 증대, 다른 단체의 자원활용, 목표달성의 용이성, 사업내용의 내실화 도모, 타 기관과 신뢰 향상, 단체의 명성 제고, 그리고 신규 회원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타 기관과 협력할 시 누리게 되는 편익으로써 새로운 정보의 확보(4.09)와 새로운 활동기회의 증대(4.00)를 꼽았다. 그리고 사업내용의 내실화 도모(3.91), 타 기관과 신뢰 향상(3.78), 타 기관과 협력관계 증대(3.74)를 주요 편익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예산의 절감(3.55)과 신규 회원의 확보(3.23)는 상대적으로 편익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집적의 편익을 향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반대로 협력을 통한 활동의 편익과 상호작용의 편익은 아직까지 주요 이점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새로운 기회와 자원의 공동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반대로 협력을 통한 활동의 전문화, 상호작용의 증대, 그리고 네트워크 내 신뢰확보 등은 주요 편익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편익은 보다 더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38> 협력의 편익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예산의 절감 | 44 | 3.55 | 1.10 |
| 새로운 정보의 확보 | 46 | 4.09 | 0.60 |
| 새로운 활동기회의 증대 | 46 | 4.00 | 0.85 |
| 다른 단체의 자원 활용 | 46 | 3.57 | 0.95 |
| 목표달성의 용이성 | 48 | 3.67 | 0.96 |
| 사업내용의 내실화 도모 | 44 | 3.91 | 0.75 |
| 타 기관과 협력관계 증대 | 46 | 3.74 | 0.96 |
| 타 기관과 신뢰 향상 | 46 | 3.78 | 0.67 |
| 단체의 명성 제고 | 46 | 3.70 | 0.88 |
| 신규 회원의 확보 | 44 | 3.23 | 1.11 |

주: 편익과 애로사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2) 협력의 애로사항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은 목적의 불일치, 정보의 부족, 성과배분의 어려움, 협력경험의 부족, 예산의 부족 및 비용의 증대, 시간 및 제도의 부족, 합의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애로사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면,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고, 추출된 3개의 요인의 설명도는 76.6%로 전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제1요인은 자원의 부족(시간 및 제도의 부족, 예산의 부족 및 비용증대, 협력경험의 부족)이고, 제2요인은 정보 및 신뢰의 부족(정보의 부족, 합의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제3요인은 목적 및 성과배분의 곤란(목적의 불일치, 성과배분의 어려움)이다.

우선 협력의 애로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부족 및 비용의 증대(4.40)와 시간 및 제도의 부족(3.96)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목적의 불일치(3.74)와 협력경험의 부족(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정보의 부족(3.45)과 합의형성의 어려움(3.39), 그리고 성과배분의 어려움(3.23)은 상대적으로 장애요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9> 애로사항의 요인분석 결과

| 잠재변수 | 관측변수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 자원의 부족 | 시간 및 제도의 부족 | 84 | 18 | 7 |
| | 예산의 부족 및 비용증대 | 77 | -15 | 30 |
| | 협력경험의 부족 | 71 | 56 | 9 |
| 정보 및 신뢰부족 | 정보의 부족 | -10 | 89 | 24 |
| | 합의형성의 어려움 | 50 | 74 | -28 |
| 목적 및 성과배분 곤란 | 목적의 불일치 | 1 | 5 | 83 |
| | 성과배분의 어려움 | 40 | 7 | 71 |
| 고유값(eigenvalue) | | 2.8975 | 1.4103 | 1.0559 |
| 기여율(proportion) | | 0.4139 | 0.2015 | 0.1508 |
| 누적기여율(cumulative) | | 0.4139 | 0.6154 | 0.7662 |

한편 협력의 애로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원의 부족이 3.99로 가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목적 및 성과배분의 곤란이 3.52, 그리고 정보 및 신뢰의 부족이 3.4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을 함에 있어서 합의형성과 성과배분은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부족 및 비용의 증대, 그리고 시간 및 제도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력활동의 증대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절대 예산과 시간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타 기관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활동에 비해서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협력활동의 비용이 증대되는 것은 활동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협력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거래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비영리 민간단체간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성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40> 협력의 편익과 애로사항

| 구분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원의 부족 | | 50 | 3.99 | 0.64 |
| | 시간 및 제도의 부족 | 48 | 3.96 | 0.86 |
| | 예산의 부족 및 비용의 증대 | 50 | 4.40 | 0.76 |
| | 협력경험의 부족 | 48 | 3.58 | 0.88 |
| 정보 및 신뢰부족 | | 46 | 3.42 | 0.69 |
| | 정보의 부족 | 44 | 3.45 | 0.74 |
| | 합의형성의 어려움 | 46 | 3.39 | 0.89 |
| 목적 및 성과배분 곤란 | | 46 | 3.52 | 0.89 |
| | 목적의 불일치 | 46 | 3.74 | 0.92 |
| | 성과배분의 어려움 | 44 | 3.23 | 1.15 |

주: 편익과 애로사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4.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문제점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적 활동보다는 독자적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활동목적이 정책적 목적을 지향할 경우 비정책적 활동에 비해서 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력적 활동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력적 활동의 경우 협력기관의 유형은 비영리 단체간, 타 기관, 그리고 비영리 + 타 기관의 적절하게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중심성이 낮고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각 네트워크별로 특성화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하위네트워크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되지 못함으로써 하위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천안 YMC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등을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활성화 방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협력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핵심기관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중심성이 높은 기관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NCA, 천안 YMCA 등 주요 핵심단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핵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전문화·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에 따라 특성화된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갖기 못하고 일시적인 형태를 갖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하위 네트워크별로 특성화된 기능과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핵심기관이 각 영역별로 전문화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하겠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별로 핵심 비영리 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기관으로 기능하는 단체들은 주로 시민사회와 환경, 그리고 복지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지역자치, 문화, 교육학술, 그리고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별로 특성화된 선도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자적 활동 및 비영리 민간단체간 활동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을 보다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협력은 전체 활

동의 2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위주의 협력에서 탈피하여 타 기관과 협력을 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설 결사체인 연대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약 35개의 연대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지만, 현재 결성된 연대네트워크의 특성과 차별성이 모호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결사체인 연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연대네트워크는 현재 시민사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과 영역별 선도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네트워크로 특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연대를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은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있지만, 이들 대장에는 가장 기본적인 현황만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대장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과 많이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비영리 민간단체 총람 등을 정리·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때 2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남·대전의 유관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유관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교류의 기회를 잘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서비스의 기능이 강조될 경우 유관기관, 특히 기업 등과 같은 제2섹터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의 부족이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기관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설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총괄적으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최소한의 정보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효율적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와 이들 기관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민가단의 활동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논의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의의와 대한 논의를 하였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네트워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을 활동범위적 특성, 활동형태적 특성, 그리고 활동규모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설립목적과 활동목적, 활동특성은 차이가 있는 반면, 활동공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별로 구분해 볼 때, 지역자치 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와 교육·학술분야는 타 기관과 협력을, 환경과 복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경제와 노동 및 농어민은 독자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② 활동목적별로 구분할 경우, 활동목적이 정책적인 경우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활동목적이 비정책적인 경우는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③ 활동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북한 및 통일, 지역자치, 환경은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문화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경제, 여성, 복지, 노동 및 농어민, 교육·학술은 비협력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공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로 해당 시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형태에 따라 활동대상, 활동방식, 연대결성, 그리고 협력기관수 등의 활동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활동대상별로 구분해 볼 때, 자체 조직회원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반

면에, 정당, 의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동대상을 할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그리고 사회단체를 활동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활동방식별로 구분해 볼 때, 대중집회와 성명서·결의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을, 선전·캠페인과 캠페인+유지활동의 경우는 타 기관과 협력을, 간담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타 기관과 동시 협력을, 그리고 청원서, 기자회견·보도, 유지활동은 비협력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연대결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연대 미결성의 경우는 주로 비협력과 타 기관과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결성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과 공동협력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협력기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력하는 경우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타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7개 이상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반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1개 정도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규모는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성과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건수와 활동기간은 활동건수, 활동기간, 참여이원은 따라 상이하지는 않지만, 활동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건수가 상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활동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기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협력유형과 관계없이 주로 당일 행사 위주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유형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규모는 수 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④ 활동비용은 협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다른 협력유형에 비해서 활동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천안 YMCA,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역적으로 볼 때,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되는 지리적 편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 및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 중 중심성이 높은 기관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전문화·차별화해야 할 것이며, ③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혹은 활동영역별로 핵심 비영리 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자적 활동 및 비영리 민간단체간 활동에서 탈피하여 타 기관과 협력이 보다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설 결사체인 연대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①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③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고,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⑤ 공공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2.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집 1호: 137-164..
- 권태환·임현진·송호근공 편. 2001. 『신사회운동의 사회화: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상구·이원일. 2004.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권 1호: 191-210.
- 김선구. 2008. 지역사회 노인지원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1.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박사논문.
- 김선혁. 2003. “시민사회론과 행정학: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37집 4호: 39-56.
- 김순양. 2003.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정부학연구』 9집 1호: 178-219..
- 김영중·이재호. 2002. “환경 NGO와 지방정부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6집 3호: 165-189.
- 김옥일. 2008.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학. 1996. “연결망과 거래비용,” 『사회비평』 14집: 86-118.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준기. 2006a.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 김준기. 2006b. 『한국 시민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준기·김정부. 2001. “NGO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논총』 39집 3호.
- 김준기·신정현. “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집 4호: 127-159 .
- 도묘연. 2007.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과 재정후원의 관계: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대한정치학회보』 15집 3호: 117-143.
- 민현정. 2004. “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권 3호: 111-131.
- 박기훈. 2008. “일본 NPO의 노인취업활동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2호: 203-224.
- 박상필. 2000. “NGO의 재정충원 방안: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박상필. 200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행정논총』 39집 4호.
- 박상필. 2006. “한국민간단체총람 해설판.”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시민의신문.
- 박원순. 2002. 『한국의 시민운동』 . 서울: 한울.
- 박진서. 2007. 과학기술 지식네트워크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치성. 2006. “비영리-정부조직간 공식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4권 4호: 231-258.
- 박한우. 2007. “사이버 공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5집 1호: 1-19.
- 샬러먼 저. 이형진 역. 2000. 『NPO란 무엇인가』 . 서울: 아르케.
- 손동원. 2008. 『사회네트워크분석』 . 서울: 경문사.
- 송두범. 2004. “광역자치단체의 NGO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보』 11권 1호: 79-113.
- 안득기. 2005. “강원지역 NGO에 대한 신뢰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집 4호: 57-81.
- 안득기. 2006a. “NGO의 리더십과 민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강원지역의 NGO를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2집 2호: 89-112.
- 안득기. 2006b. “NGO의 공익성과 윤리성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40집: 213-233.

- 윤성이. 2001, “인터넷 혁명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개,” 김영래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157-186쪽 참고.
- 이관률. 2005.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특성과 영향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균형. 2004. “혁신확산과정에서 사회네트워크이론의 적용: 복음의 사회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과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465-481.
- 이숙중·양세진. 2007. “시민단체의 책무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79-105.
- 장인봉·고종욱. 2004.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요인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3호: 87-110.
- 전영평. 2001. “시민단체와 지방저부간 관계: 상호 인식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논집』 13집 1호: 149-177.
- 정상호. 2006a. “한국 이익집단 연구의 분석적 개괄.” 『한국정치학회보』 40집 1호: 91-114.
- 정상호. 2006b. 『NGO를 넘어서: 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서울: 한울.
- 정상호. 2008. “한국 시민단체(NGO)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 『동서연구』 20집 2호: 249-276.
- 정정화. 2003. “정부와 NGO의 관계모형.” 『한국행정논집』 15집 3호: 621-642.
- 정태석. 2004. “시민사회와 NGO에 관한 최근 논의와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683호.
- 조명래. 1998. “새로운 산업공간과 네트워크 이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권 2호.
- 조민경·김렬. 2007.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 15집 3호: 195-218.
- 조성한. 2005.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19권 2호: 47-68.
- 조희연. 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전망.” 김동춘외. 『NGO란 무엇인가』 서울:아르케.
- 주성수. 2001. “정부-NGO 관계와 NGO의 역할: NGO 사업공모 사례.” 『한국행정연구』 10권 4호: 290-318.
- 주성수. 2005a. 『NGO와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 2005b. “NGO, NPO, CSO 개념: 국제적 통용과 국내적 적용.” 『한국비영리연구』

14권 1호: 5-37.

채종현. 2007.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병대·김상구. 2004.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집 1호: 217-241.

최창현. 2006. “조직의 비공식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권 1호: 1-23.

최창현·사득환. 2004.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단체간 연결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권 3호: 1-25.

한국행정연구원. 2002. 『한국 NGO의 활동적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허철행·문유석·김상구. 2008.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홍성만. 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집 1호: 358-382.

홍성만·전영평. 2005. “한국 행정학 분야에서 NGO연구의 활용수준 분석과 전망.” 『한국행정연구』 14집 4호: 299-322.

황종복·노인만. 2007. “한국행정학계의 NGO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9권 3호: 773-802.

2. 국외문헌

- Almond, Gabriel and Bingham Powell. 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 Bergman, E. M., E. J. Feser.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s: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The Web Book of Regional Science, <http://www.rri.wvu.edu/WebBook/Bergman-Feser/contents.htm>.
- Bergman, E. M., E. J. Feser.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s: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The Web Book of Regional Science. <http://www.rri.wvu.edu/WebBook/Bergman-Feser/contents.htm>.
- Berry, Jeffrey M., 1999. *The New Liberalism: The Rising Power of Citizen Group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Berry, Jeffrey M. 1977. *Lobbing for the Peo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ry, Jeffrey M. 1984. *The Interest Group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Bills, D. and Glennerster, H. 1998. *Human Service and the Voluntary Sector*.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27 No. 1.
- Capineri, C., F. Kamann. 1988. "The Concept of Network Synergies in Economic Theory: Policy Implication", in Priemus, H. et. al.. *European Transport Networks: A Strategic View*. Edward Elgar: Cheltenham.
- Clayton, A., Oakley, P. and Taylor, J.. 200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ervice Provision*.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Programme Paper 2. www.unrisd.org
- Coase, R.. 1990. "Accoun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12, No. 1.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 Cook, K. S. and R. M. Emerson. 1978. "Power, Equity and Commitment in Exchange

-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3: 721-739.
- Coston, Jennifer M. 1998.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NGO Relationship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27 No. 3.
- Dawson, Paul. 1973. On Making Public Policy More Public: The Role Public Interest Groups. 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Orleans, Louisiana.
- Dodgson, M. 1994. "Technological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in Dodgson, M., R. Rothwell. *The Handbook of Industrial Innovation*. Edward Elagr.
- Dodgson, M. 1994. "Technological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in Dodgson, M., R. Rothwell. *The Handbook of Industrial Innovation*. Edward Elagr.
- Drucker, P.. 1994. *Post-capitalist Society*. HaperBusiness. NY.
- Duverger, Maurice. 1972. *Party Politics and Pressure Groups: A Comparative Politics*. N. Y.: Crowell.
- Edward, Michael. 1996. *Beyond the Magic Bullet: NG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West Hartford: Kumarian.
- Ferris, J. M. and Graddy, E. A.. 1989, Structural changes in the hospital industry, charity care and the nonprofit role in health car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28.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Berkeley: The Univ. of California Press.
- Goddeeris, John H. and Burton A. Weisbrod. 2000. "Conversion from Nonprofit to for-Profit Legal Status: Why does it happen and should anyone care?" Burton A. Weisbrod. *To Profit or Not to Profit: The Commercial Transform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bher, G.. 1993.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 Routledge. N. Y.
- Grabher, G.. 1993.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 Routledge: NY.
- Hagedoorn I., A. Link, N. Vonortas. 2000. "Research Partnership." *Research Policy*. Vol.

29. Issues 4-5.

- Hagedoorn, I.. 1996. "Trends and patterns in Strategic Technology Partnering Since the Early Seventies."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1, No. 5.
- Hall, Peter D.. 1992. *Inventing the Nonprofit Sector: Essays on Philanthropy, voluntarism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ämäläinen, T.. G. Schienstock. 2000. "Innovation Networks and Network Policies." Focus Group on Innovative Firms and Networks, in <http://www.oecd.org/dataoecd/35/8/2100869.pdf>.
- Hämäläinen, T.. G. Schienstock. 2000. "Innovation Networks and Network Policies." Focus Group on Innovative Firms and Networks. in <http://www.oecd.org/dataoecd/35/8/2100869.pdf>.
- Held, V.. 1970.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 New York: Basic Books.
- Iain, Attack. 1999. Four Criteria of Development NGO Legitimacy. *World Development*. Vol. 27 No. 2: 855-864.
- James, Estelle. 1987. Nonprofit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Walter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A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hn, U.. 1999. *Participation Beyond the Ballot Box*. London: UCL Press.
- Kamien, M., I. Zang. 2000. "Meet Me Halfway: Research Joint Ventures and Absorptive Capa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18, No. 7.
- Kilby, Patrick. 2006. Accountability for Empowerment: Dilemmas Facing NGO's World Development. Vol. 34 No. 6: 951-936.
- Lipsky, M. and Smith, S. R.. 1989. *The Study of Nonprofit Sector*, Cambridge: Cambridge Harverd University Press.
- Mowery, D., N. Rosenberg. 1989. *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2002. *A Governor's Guide to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

- O'Connell, B. 1996. A Major Transfer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Vountary Organizations? Proceed with Ca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6 No. 3.
- O'Neil, Michael. 1989. The Third American. San Francisco: Jossey-Bass.
- Peters, B. Guy and John Pierre.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6 N. 2: 225-242.
- Preissl B.. L. Solimene. 2003. The Dynamics of Clusters and Innovation. Physica-Verlag Heideberg. NY.
- Provan, K. G. and H. B. Milward. 1995. A Preliminary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Effectivenes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Admin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0 No. 1: 1-33.
- Roelandt, T. J. A., P. den Hertog. 1999. Cluster Analysis and Cluster-base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An Introduction to the Theme. OECD.
- Roelandt, T. J. A.. P. den Hertog. 1999. Cluster Analysis and Cluster-base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An Introduction to the Theme. OECD.
- Sable, C. F.. 1989. "Flexible Specialization and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es." in Hirst P.. J. Zeitlin. Reversing Industrial Decline. Berg: Oxford.
- Salamon Laster. M. and Anheier, Helmut K.. 1996. The Emerging Nonprofit Secto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alamon Laster. M. and Sokoloski, S. W.. 2004. Global Civil Society. Bloomfield: Kumarian Press.
- Salamon Laster. M.. 1994.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Vol. 73 No. 4. pp. 109-122.
- Salamon Laster. M..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2nd edition, New York: Foundation Center.
- Schattschneider, E. 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New York: Alfred A. Knopf.
- Schlozman, K. Lehman. and John T. Tierney. 1986.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Scott A., M. Storper. 1992. "Regional Development Reconsidered." in Ernste H. and V. Meier.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zation. Bellhaven Press: London.
- Unerman Jeffry and B. O'Dwyer. 2006. Theorizing accountability for NGO.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Vol. 19 No. 3: 349-376.
- Walker, Jack L., 1991,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Weisbrod, Burton A.. 1998.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An Economic Analysis. Lexington, Mass.: D. C. Heath.
- World Bank. 1997. Handbook on Good Practices for Laws Relating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ashington D. C.(www.WorldBank.org).

부록 2: 설 문 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실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별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절대적 필요하오니,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2009년 11월 13일까지 반송해 주시면 연구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조사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이관률

※ 본 설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041-840-1136 Fax: 041-840-1159, E-mail: krlee@cdi.re.kr)

I. 일반사항

| | |
|---------------|-------------------------------------|
| 단체명 | ()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시·군, 연락처 () - () |
| 설립연도 | ()년 |
| 회원수(2009 기준) | ()명 |
| 사무국 인원(상근직원) | ()명 |
| 연간예산(2009 기준) | ()백만원 |
| 단체 유형 | ① 개별 독립단체 ② 중앙부처의 지회 ③ 대전·충남의 지회 |
| 대표자의 선출형태 | ① 회원의 일반 선거 ② 위원회 투표 ③ 추대 ④ 호선 ⑤ 기타 |

II. 활동범위적 특성

1. 귀 단체의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시민사회 ② 지역자치 ③ 사회서비스 ④ 복지 ⑤ 환경 ⑥ 문화 ⑦ 교육·학술
 ⑧ 종교 ⑨ 노동 및 농어민 ⑩ 경제 ⑪ 북한 및 통일 ⑫ 여성 ⑬ 기타()

2.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수행한 **활동목적별 활동건수와 구성비**는 어떠하십니까? 각각 건수와 구성비를 표기해 주십시오.

| 활동유형 | 건수 | 구성비 |
|---------------------------------|-------|------|
| ① 총 활동 | 총()건 | 100% |
| ② 정책적 활동(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 | ()건 | ()% |
| ③ 비정책적 활동(자원봉사활동 및 단체 본연의 활동) | ()건 | ()% |

3. 귀 단체가 **주요 활동하는 분야**는 어떠합니까? 주요 활동영역 **두 가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시민사회 ② 지역자치 ③ 사회서비스 ④ 복지 ⑤ 환경 ⑥ 문화 ⑦ 교육·학술
 ⑧ 종교 ⑨ 노동 및 농어민 ⑩ 경제 ⑪ 북한 및 통일 ⑫ 여성 ⑬ 기타()

4.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주로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각 공간별 구성비를 표기해 주십시오.

| 공간적 범위 | 구성비 |
|---------------------|-----------------|
| 전체 활동 | 100% |
| ① 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시군 | ()% |
| ② 대전·충남지역 | ()% |
| ③ 국내 타 지역 | ()% |
| ④ 해외 | ()% |

III. 활동형태적 특성

1.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주로 접촉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각 활동 대상별 접촉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 구분 | 접촉정도 | | | | |
|------------------------|-------|----|----|----|-------|
| | 매우 자주 | 자주 | 보통 | 가끔 | 매우 가끔 |
| ① 정부(지방정부 포함) | | | | | |
| ② 의회(지방의회 포함) | | | | | |
| ③ 사법부 | | | | | |
| ④ 정당 | | | | | |
| ⑤ 언론기관 | | | | | |
| ⑥ 대중 | | | | | |
| ⑦ 공공기관(KT, 한전 등) | | | | | |
| ⑧ 교육기관 및 연구소 | | | | | |
| ⑨ 기업 | | | | | |
| ⑩ 비영리 민간단체 | | | | | |
| ⑪ 기타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이외) | | | | | |
| ⑫ 조직자체 및 회원 | | | | | |
| ⑬ 기타() | | | | | |

2.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주로 활용한 활동방식은 어떠하십니까? 활동방식의 활용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 구분 | 활용정도 | | | | |
|----------------------------|-------|----|----|----|-------|
| | 매우 자주 | 자주 | 보통 | 가끔 | 매우 가끔 |
| ① 선거지원 | | | | | |
| ② 의회참여 | | | | | |
| ③ 간담회 및 공청회 | | | | | |
| ④ 사법소송제기 | | | | | |
| ⑤ 청원서 | | | | | |
| ⑥ 기자회견 미 보도의뢰 | | | | | |
| ⑦ 대중집회 | | | | | |
| ⑧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 | | | | | |
| ⑨ 선전 및 캠페인 | | | | | |
| ⑩ 조직의 유지 활동(총회 등) | | | | | |
| ⑪ 강연회 · 토론회 · 특강 | | | | | |
| ⑫ 유지활동 및 캠페인 | | | | | |
| ⑬ 기타() | | | | | |

3. 귀 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연대단체: 다른 사회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맺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천안시민단체 협의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① 참여하고 있다 ② 과거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③ 참여하지 않고 있다 ④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3-1. 만약 귀 단체가 현재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모든 단체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IV. 협력활동의 특성

1. 귀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협력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많이 협력한다 ② 협력한다 ③ 보통이다 ④ 협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3. 귀 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어려움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 구분 | 중요도 | | | | |
|-------------------|----------|----|----|-----|-----------|
| | 매우 중요 | 중요 | 보통 | 안중요 | 매우 안중요 |
| ① 목적의 불일치 | | | | | |
| ② 정보의 부족 | | | | | |
| ③ 성과배분의 어려움 | | | | | |
| ④ 협력경험의 부족 | | | | | |
| ⑤ 예산의 부족 및 비용의 증대 | | | | | |
| ⑥ 시간 및 제도의 부족 | | | | | |
| ⑦ 합의형성의 어려움 | | | | | |
| ⑧ 기타() | | | | | |

4. 귀 단체가 다른 기관과 협력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이점의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 구분 | 중요도 | | | | |
|-----------------------|----------|----|----|---------|-----------|
| | 매우 중요 | 중요 | 보통 | 안중 요 | 매우 안중요 |
| ① 예산의 절감 | | | | | |
| ② 새로운 정보의 확보 | | | | | |
| ③ 새로운 활동기회의 증대 | | | | | |
| ④ 다른 단체의 자원 활용 | | | | | |
| ⑤ 목표달성의 용이성(사업성과 극대화) | | | | | |
| ⑥ 사업내용의 내실화 도모 | | | | | |
| ⑦ 타 기관과 협력관계 증대 | | | | | |
| ⑧ 타 기관과 신뢰 향상 | | | | | |
| ⑨ 단체의 명성 제고 | | | | | |
| ⑩ 신규 회원의 확보 | | | | | |
| ⑪ 기타() | | | | | |

5. 귀 단체는 다른 기관과 협력적 활동에서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구분 | 중요도 | | | | |
|---------------|----------|----|----|-----|-----------|
| | 매우 중요 | 중요 | 보통 | 안중요 | 매우 안중요 |
| ① 협력적 활동의 만족도 | | | | | |
| ② 협력적 활동의 신뢰도 | | | | | |
| ③ 협력적 활동의 유용성 | | | | | |

6.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주로 협력적 활동을 수행한 단체는 누구입니까? 주요 3개 협력 단체의 명칭과 해당 단체별 협력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 주요 협력 단체명 | | 협력정도 | | | | |
|-----------|--|----------|----|----|----|----------|
| | | 매우 자주 | 자주 | 보통 | 가끔 | 매우 가끔 |
| 제1단체 | | | | | | |
| 제2단체 | | | | | | |
| 제3단체 | | | | | | |

7. 귀 단체가 최근 3년간 수행한 활동의 **협력 비중**과 **평균 협력기관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최근 3년간 활동을 100%로 했을 때, **협력적 활동의 수**는? ()건
 ② **협력적 활동**을 수행한 경우, **평균적으로 참여한 기관수**는? ()건 단체

V. 1회 활동의 규모

1. 귀 단체는 **단일 목적의 활동**(1회의 활동)을 평균적으로 몇 일간 진행하십니까?
 정책적 활동과 비정책적 활동으로 구분해 표기해 주십시오.

| 활동목적 | 활동의 유지 일수 |
|-----------|-------------------------|
| ① 정책적 활동 | ()일 |
| ② 비정책적 활동 | ()일 |

2. 귀 단체는 **단일 목적의 활동**(1회의 활동)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십니까?
 정책적 활동과 비정책적 활동으로 구분해 표기해 주십시오.

| 활동목적 | 참여규모 |
|-----------|-------------------------|
| ① 정책적 활동 | ()명 |
| ② 비정책적 활동 | ()명 |

3. 귀 단체는 **단일 목적의 활동**(1회의 활동)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
 니까? 정책활동과 비정책적 활동으로 구분해 표기해 주십시오.

| 활동목적 | 소요비용 |
|-----------|--------------------------|
| ① 정책적 활동 | ()만원 |
| ② 비정책적 활동 | ()만원 |

VI. 운영적 특성

1. 다음 활동 중 귀 단체의 회장단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예산배정 및 조정 ② 대외활동 ③ 임원선출 ④ 회칙개정

2. 귀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 구분 | 정도/수준 | | | | |
|---|----------|----|----|----|----------|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①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회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② 일반회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도부가 수렴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③ 소수의 위원 및 활동가에 의해서 사안이 결정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④ 대표자와 책임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⑤ 단체의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⑥ 단체의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가 사무처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3. 다음의 질문은 귀 단체의 활동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귀 단체는 어떠합니까?

| 구분 | 정도/수준 | | | | |
|---|----------|----|----|----|----------|
|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전 과정이 조직의 비전 및 목표와 일치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② 단체 활동의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③ 단체 재정이 목표로 하는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④ 단체 재정에 대해 회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⑤ 단체 운영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⑥ 단체 사업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 ⑦ 사업의 운영 과정이 문서화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도는 어떠합니까? | | | | | |

4. 귀 단체에는 후원자 및 회원들이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만약 있다면, 후원자 및 회원들의 참여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5. 후원자 및 회원들이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제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만약 있다면, 불만을 제기하는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도묘연 상임연구원

기본연구 2009-03 ·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글쓴이 · 이관률, 도묘연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9년 12월 31일 /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36(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91-8 03350

<http://www.cdi.re.kr>

©2009.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